서상돈 아우구스티노

장면 요한

최정숙 베아트리체

김익진 프란치스코

김홍섭 바오로

불꽃이 향기가 되어

20세기를 살아간 다섯 사람 이야기

■ 김익진 프란치스코 교육가, 사상가, 문필가. 《동서의 피안》, 《내심낙원》 등 많은 번역서와 기고문을 남겼다. ■ 김홍섭 바오로 법관이자 가톨릭 사상가. 청렴한 생활,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바른 재판으로 '사도 법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 최정숙 베아트리체 제주가 낳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평생 고향 제주의 교육을 위해 몸 바쳤으며 의원을 열어 가난한 이들의 진료에도 힘썼다. ■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대구대목구 초기의 대표적 평신도. 일생을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노력했고 국채보상운동 등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 장면 요한 정치가이자 교육가, 문필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제1공화국 국무총리와 부통령, 제2공화국 국무총리를 지냈을 뿐 아니라 교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책값: 13,000원 엮은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펴낸곳: 도서출판 으뜸사랑 판매처: 가톨릭출판사 직영서점, 인터넷서점(예스24, 인터파크, 영풍 등)

2016년 여름 계간 52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6년 여름
계간 52호

평신도

인사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 만남 한효수 의정부평협 회장 • 손상민 꾸르실료 주간 나눔 가톨릭 상장례 해설 • 이 시대의 징표 • 가톨릭노동청년회 휴식 광주대교구 흑산도본당 사리공소 특집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이야기 북한생활 체험기 배움 인문학 강좌 • 수도회 영성 • 평신도 양서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

2016년 여름
계간 52호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편집위원 권지영 데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류주희 클로틸다, 명백훈 프란치스코, 서상덕 스테파노, 신동수 세라피나, 오완수 바오로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사진/ 절두산성지 – 유동희 바오로

스승의 삶을 따랐던 제자들은 스승을 닮은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한여름 뙤약볕보다 강했던 순교자의 믿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며 백색순교를 해야할 때, "나는 천주교인이오!" 하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신앙 선조들에게 전구합니다.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08 평신도가 뛴다 / 권지영

나눔
11 가톨릭 상장례 해설 /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18 이 시대의 징표 / 황필규
21 평신도 연구 / 정진호
24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휴식
27 광주대교구 흑산도본당 사리공소 / 송권

특집
28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현대의 순교, 순교자 / 서상덕

이야기
32 북한생활 체험기 / 박정일 주교

배움
37 인문학 강좌 / 김문태
40 수도회 영성 / 김숙자
42 순교자들의 영성 / 김길수
46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이대현
50 영화음악 세상 / 정성엽
52 평신도 양서 / 류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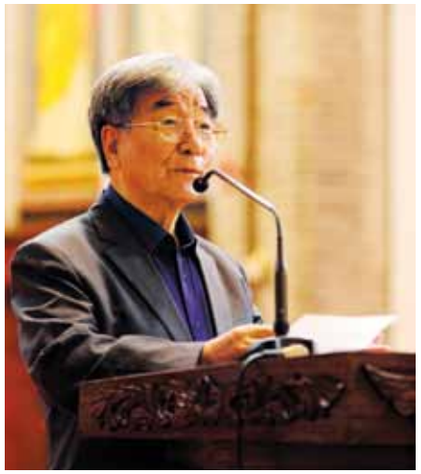
소식
54 교구평협 · 회원단체

회장 인사말

현대의 순교,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권길중 바오로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다블뤼 주교가 체포되었을 때 성 황석두 루카는 자기의 영적 스승이요, 아버지인 주교를 따라가기를 원해서 자기가 주교의 제자라고 말했다."(개정판 103위 성인전, 박노연 편저 중)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수없이 전개되는 C의 연속이다."

인생은 탄생(Birth)부터 죽음(Death) 때까지 선택(Choice)의 연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고집하느냐가 우리의 성덕을 결정하는 요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되면 거의 반사적으로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셈하게 됩니다.

최종 결재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제가 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교원의 인사이동은 대부분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인 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1월인데 엉뚱하게 어떤 고등학교로 이동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이동은 제가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짧아도 3년은 늦게 되는 매우 불리한 인사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옮길 때는 본인의 승낙이 우선 요구되는 것인데 그 과정도 생략된 채였습니다. 교장 승진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사에서 가장 최종적인 결재자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새 학교로 부임하여 나를 그곳에 부르신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기가 죽어 지냄을 파악했습니다. 그 원인은 학생 대부분이 선수학습(先修學習)의 결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느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불러 주신 뜻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척 기뻤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도 놀랄 만큼 쉽게 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념을 달리하는 선생님들까지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습니다.

학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이 일에서 비켜서 있지 않고 이 기적의 바람 앞에 신나게 참여했습니다. 학교생활이 행복하고 신이 났습니다. 일치와 사랑의 기적 같았습니다. 저같이 작고 무능한 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몸은 고달팠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현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도 목숨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 앞서서 우리들을 삼키고자 하는 유혹은 강력합니다. 이때마다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억, 희망, 증거'의 삶을 살아야

2014년 광화문에서 시복식을 집전해 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바티칸에서 행한 일반 알현에서 한국 방문에 대한 소회를 '기억, 희망, 증거'의 세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선교사 없이 평신도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유일한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뒤 100년이 넘는 동안 왕이 바뀌었어도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오직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혹독한 형벌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하느님께 바쳐 순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고 교황님께서 권고하신 것입니다. 신앙선조들의 순교와 온전한 교회 건설을 위해서 애타게 전개한 성직자 영입운동 등 우리 교회사 전체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께만 희망을 둘 것을 권고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헛되고 헛됨'을 알고, 오직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 안에서만 희망을 찾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느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백색순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3-16 참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자기를 위해서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자신을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내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 그곳이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는 신성한 성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패하지 않고 하느님의 빛이 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함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결의를 실행하는 것이 '백색순교'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순교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순교자들이 배교할 수도 있었듯이 우리도 수없이 많은 경우 내 뜻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질 때 그대로 엎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이 지낼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심을 믿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또다시를 반복하며 일어서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한효수 바오로**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간절한 기도는 꼭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한효수 의정부교구 평협 회장은 출범한 지 3년 된 '젊은'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심 깊은 분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신앙체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신 한 바오로 회장께 감사드린다.

2015년 10월 이기헌 교구장으로부터 의정부교구 평협 회장 임명장을 받는 한효수 회장.

한효수 회장 가족의 신앙 이야기는 2011년 의정부교구 소공동체 월간지 《나무그늘》에 실렸다.

지난 5월, 주말을 앞둔 서울 도심의 점심시간.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그분을 만나기로 했다. 당신의 일터가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역으로 직접 마중 나오시겠다고 했다. "점심 한 끼야 뭐 어렵겠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간 평신도지 제작 일정을 감안해 급하게 부탁드린 인터뷰 요청에도 주저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신 분이 바로 한효수 회장(60세)이었다. 초행길인 필자가 염려된 듯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전철역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초여름 날씨에도 넥타이까지 맨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반듯하게 빗은 머리가 인상적이었다.

"저희 의정부 평단협(이하 평협으로 표기)은 별로 활동한 것도 없고, 아직 변변한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신생 단체라서 드릴 말씀도 없는데…." 한 회장의 말투는 에둘러서 가는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었다. 한눈에도 뭘 꾸미고 덧붙이고 하지는 못할 사람으로 보였다. 필자도 웃으면서 바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회장님께 평협 활동에 대해서만 여쭙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로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같은 평신도로서 편하게 듣고 싶어서요. 그냥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불교 입교했다가 아내 권유에 가톨릭으로

한 회장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젊었을 때부터 IT업계에 뛰어들어 잔뼈가 굵었고, 현재는 산업용 PDA 및 모바일 제조업체인 (주)포인트모바일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쉽게 말해 마트에 가면 계산하고 사인할 때 쓰이는 산업용 PDA(휴대용 정보 단말기)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이해하면 된단다. 인터넷으로 회사를 검색해 찾아보니 중국 선전에 있는 공장에서 연간 300만 개 제품을 생산하는, 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었다.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는 다닐 거예요." 한 회장이 사람 좋은 미소를 건네며 전철역 근처의 조용한 식당으로 안내했다. 한국 경제를 이만큼 키운 수출산업기지이자 봉제공장이 줄지어 들어서 있던 가리봉동은 최첨단 빌딩이 들어선 디지털단지로 상전벽해가 되어 있었다. 점심을 들면서 한 회장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톨릭 신자로 살게 된 지도 벌써 24년째라고 했다. 막상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니 한 회장의 인생도 상전벽해 못지않았다.

"저희가 원래 구교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어쩌다 원불교 쪽을 다니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원불교에서 법명까지 받으셔서 저도 그쪽에 자주 놀러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 법명을 받게 됐지요." 젊어서 원불교를 접했지만 법당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아니었다고 했다. "군대 있을 때는 먹을 것 많이 주는 교회나 성당을 더 많이 다녔어요. 절에는 사월 초파일에만 가면 됐지요. (웃음)"

그런 한 회장이 하느님과 만나게 된 것은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난 뒤인 1992년의 일이었다. "직장 때문에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 살게 됐는데, 앞집에 살던 분이 성당을 다니셨어요. 자연스럽게 아내(김명기 헬레나)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아내와 같이 다녔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성당 다니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면 낚시가기 바빴죠. 그래서 일요일이면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제 차로 성당에 데려다주고 저는 낚시를 하러 가곤 했지요. (웃음)"

전능하신 주님께서 주일마다 성당 근처만 왔다가 잽싸게 그냥 '내빼는' 한 회장을 그냥 놔두실 리 만무하다. 인간이 알아채지 못하는 오묘한 방법을 써서 사람을 기가 막히게 낚는 어부가 아니신가!

"어느 날 동네에 살던 분이 상을 당했는데, 식구도 얼마 없어서 일손이 부족했었나 봐요. 아내가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도 해주고 하는데, 성당의 연령회원이라는 분들이 와서 연도를 해주고, 너도 나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데, 한 명도 힘들어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가슴에 깊이 남았지요. 그때가 아내가 세례 받고 6개월쯤 지난 후였어요. 얼마 지난 뒤에 아내가 "아이들도 커가는데, 함께 종교를 가지는 게 어떠냐?"고 제게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성당에 다니게 됐어요. 광주 지산동성당의 박상수 신부님께 교리를 듣고 세례 받았지요. 그 세월이 벌써 30년입니다."

한효수 회장의 본당은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성당이다. "아내 헬레나는 여성구역장을 맡고 있고, 성모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자녀들(베드로와 요세피나)도 잘 다니고 있고요. 저는 본당에서 독서와 전례 봉사를 했고, 지금은 성체분배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보살핌으로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할 일이지요."

레지오마리애 활동이 신앙 살찌워

한 회장의 신앙을 살찌운 것은 레지오마리애라고 했다. "레지오 활동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의정부교구 레지아 단장을

제주도에서 가진 레지오 평의원 연수. 레지오는 한효수 회장 신앙의 뿌리다.

맡고 있는 한 회장은 레지오 단원 교육 시간이면 신자들 간에 신앙체험이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신앙을 키워가고 있다고 했다.

"우리 의정부교구 20만 신자 중에 레지오 행동단원이 9천 명이 넘습니다. 역사도 깊어서 내년이면 레지오마리애 도입 61주년을 맞습니다. 교구장이신 이기헌 주교님도 소년 레지오 출신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레지오 활동이 중요합니다. 레지오는 순명, 희생, 사랑이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가 힘든 것도 우리의 희생과 사랑이 없어서잖아요."

레지오마리애에 대한 한 회장의 애정은 각별했다. 실은 그 때문에 평협 회장을 맡게 됐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제가 평협 회장을 맡게 됐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제가 '평협 회장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주교님께서 '레지아 단장으로서 항상 교육 다니면서 '순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셔요. 제가 꼼짝할 수가 없었죠." (웃음)

내친 김에 의정부 평협은 올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저희 의정부교구 평협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교구장님 지침에 따라 3년 전에 평협을 시작했어요. 역사도 짧고 해서 그동안 이렇다 할 큰 사업도 하지 못했지요." 의례적인 겸손한 멘트가 아니라 실제 의정부교구 평협이 처한 상황이 열악하다고 했다.

6월 24~25일 평협 봉사자 피정 가져

의정부교구 평협은 현재 한효수 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레지아를 비롯해 꾸르실료, 합창단, ME 등 17개 제 단체의 간부와 회원들이 모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강신모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이 지도신부를 맡고 있는데,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6월 24~25일에 1박 2일 평협 봉사자 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시작단계라서 다른 교구처럼 사업을 크게 벌이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평협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17개 제 단체들이 서로를 잘 알아갈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려고 합니다. 6월에 1박 2일 피정을 마치고 나면 제 단체의 회원들이 더 잘 소통하고 더 뭉칠 수 있게 되겠지요. 한국 평협이 주도하고 있는 '답게 삽시다' 운동도 피정 기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교구는 서울대교구에서 2004년 분리되어 설립된 지 12년 된 젊은 교구이다.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신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규모의 공장이 많고, 지역의 특성상 보살핌이 필요한 새터민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교구장 이기헌 베드로 주교님의 사목지침에 따라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남북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꼭 바친다고 한다.

"우리 교구 평협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꼽으라면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단체들과 신자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하려고 해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평협 사무실이 따로 없어서 교구청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독립된 사무실에다 상근 간부까지 두고 있는 다른 교구에 비하면 의정부교구는 아직 갈 길이 멀지요. 그래서 우리 평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늘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빠듯한 점심시간이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었다. 기도와 감사, 봉사가 몸에 밴 한 회장이지만 직분을 맡아 힘들지는 않을까? "본당에서, 교구에서, 기쁘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가까운 분들 중에 본당에서 교구에서 너무 많은 직분을 맡아 힘들어하는 모습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성당일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고민하는 분들도 있지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신도는 먼저 자기 일터에서, 가정에서 충실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성당일도 중요하지만 성당에는 그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신부님과 수녀님이 버티고 계시잖아요. (웃음)"

기도했더니 어려운 일도 다 풀려

한 회장은 늘 기도하는 생활이 좋다고 했다. 아침마다 집에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출근한단다. 기도와 감사가 일상이 되다보니 살면서 안 풀리던 일들도 해결되더라는 말도 했다. 한 회장이 당신의 가족과 관련된 체험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아들(한바다 베드로)이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황장애가 왔어요. 다행히 군대생활 하면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 본당 신자 분들과 신부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완치가 됐지요. 아들 베드로에게 또 은혜 받을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독일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한때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여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중국인이고, 국제변호사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아들의 반려가 되어줄 사람이 누가 없을까 늘 생각했었는데, 그 기도의 힘인지 아들이 두바이에 있는 중국회사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여자 친구와 우여곡절 끝에 재회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베드로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가 작년 12월에 입국해서 서울의 유명 로펌사무소를 다니고 있어요. 아들도 독일에서 귀국해서 몸 건강하게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이제 두 사람이 혼인할 일만 남았지요." (웃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한 회장이 더 감사할 일을 하나 더 준비해 놓고 계셨더란다. 기도의 힘으로 아들이 완치되고 착한 며느리까지 얻게 된 것도 감사한데, 얼마 전에는 예비 며느리가 제 발로 교리를 받겠다고 찾아왔더란다.

"예비 며느리가 중국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고, 심성이 참 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웃음)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며느리 될 아이가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늘 묵주기도를 하는데, 그게 지난주에 응답이 왔습니다. 며느리 될 그 아이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는 '아버지, 어머니 다니는 성당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날 온 가족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주위에서 다 그러세요. 단장님과 자매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이제는 둘이 성당에서 꼭 혼배미사 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평신도 분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이 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한효수 회장을 만나 변함없는 그 말씀을 새삼 확인하고 헤어지는 필자의 발걸음도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아멘.

평신도가 뛴다

꾸르실료 *Cursillo*

대담 · 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작년 겨울호에 이어 이번 여름호에서 만난 평신도 단체는 꾸르실료입니다. 소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소개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꾸르실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상민 베드로 주간이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주간으로 새롭게 임명됐는데요.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손상민 베드로 주간은 내년 꾸르실료 한국 도입 5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상민 베드로 주간

올해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주간으로 임명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평신도〉 독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9대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 www.cursillo.or.kr 주간으로 봉사하게 된 손상민 베드로입니다. 지난 12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실 즈음 제29대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30여 명의 임원들은 '교회의 가르침은 새로운 복음화의 나침반'이라는 2016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에 따라 꾸르실리따들에게 주어진 환경의 복음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서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희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주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교황칙서 〈자비의 얼굴〉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교회의 봉사자로서 '자비의 희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읽다보니, 자비의 희년을 사는 신앙인의 삶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다짐한 꾸르실리스따의 삶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비의 얼굴'을 통해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재'라 말씀하시며, '태도와 행동으로 일상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은 각자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그 환경을 복음화하려고 노력하는 꾸르실리스따의 삶,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자비의 희년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리스도인, 특히 환경을 복음화하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겠다고 고백한 우리 꾸르실리스따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봤습니다.

제47차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총회

꾸르실료는 내년 한국 도입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하는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사무국은 '2017년 꾸르실료 한국 도입 50주년'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조직 내부에서는 남녀 부주간 체제로 있던 조직을 기획담당(기획, 교수, 홍보) · 총무담당(총무, 조직, 재정, 국제) · 전례담당(전례, 음악, 청년) 부주간 체제로 바꿔 꾸르실료 사무국의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꾸르실료 운동 도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50여 년 동안의 각종 자료를 취합해 《꾸르실료 운동 한국 도입 50주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회장 교구인 서울대교구가 중심이 돼 각 교구별로 꾸르실료 임원 2명씩을 편찬위원으로 위촉해 구성했으며, 원고정리 및 작성 · 교정 및 교열 · 편집 등 실무적인 작업을 위해 서울대교구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로 계획되어진 '꾸르실료 운동 한국 도입 50주년 기념 울뜨레야' 전에 발간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꾸르실료 운동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보고서 발간도 준비 중입니다. 서울대교구 조영관 에릭 신부님을 연구책임자로 해 울뜨레야 간사, 봉사자, 한국협의회 전 · 현직 임원, 청년 꾸르실료, 서울대교구 사무국 임원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꾸르실료 운동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의 목적은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꾸르실료 운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해 한국 꾸르실료 운동이 지녀야 할 정체성과 영성을 확립하는 한편, 한국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꾸르실료 운동이 추진해야 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정리돼 '새로운 반세기를 향한 한국 꾸르실료 운동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발간됐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꾸르실료 운동의 본질적인 정신과 영성을 담고 있는 '꾸르실료 운동의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한 10가지 발전방안이 담겨있습니다. 일례로, 꾸르실료 운동의 홍보 강화(비밀주의에 대한 문제 극복), 재교육 강화, 시대적 · 교회적 상황을 반영한 롤료(강의), 청년 꾸르실료 강화, 실버(어르신) 꾸르실료 도입, 사회복음화에 대한 관심 확대, 꾸르실료 환경복음화연구소(가칭) 설립 등의 내용입니다.

꾸르실료 한국 50주년 도입 기념 행사는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도입 50주년 기념행사격인 '꾸르실료 운동 한국 도입 50주년 기념 울뜨레야'는 오는 2017년 9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기획부를 중심으로 행사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 울뜨레야의 사전 행사로 연결 고리 기도, 스페인 성지순례 등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 파티마에서 개최되는 꾸르실료 세계대회 일정에 맞춰 스페인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청년 꾸르실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꾸르실료 운동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청년 꾸르실료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014년 호주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대회에 아시아태평양그룹 회장국 자격으로 참석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청년 꾸르실료를 보고한 후, 꾸르실료 세계기구인 OMCC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청년 꾸르실료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관련 자료를 요청해 영어로 번역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구 중 청년 꾸르실료를 실시

하는 교구는 서울대교구를 포함해 대전교구, 의정부교구입니다. 부산교구도 청년 꾸르실료가 있었지만 없어졌습니다. 서울대교구는 2000년 6월(현재까지 1,800명 수료), 의정부교구는 2006년 1월(현재까지 약 600명 수료), 대전교구는 2008년 8월(현재까지 약 350명 수료)에 청년 꾸르실료를 시작했습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청년 12차까지는 남성청년, 여성청년을 분리해 실시하다가 청년 13차부터는 혼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월에 청년 27차 꾸르실료가 끝났습니다. 지난 2014년 광화문에서 봉헌된 시복미사 때 봉사한 500명의 청년 중에 350여 명의 봉사자가 청년 꾸르실리스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올해는 특히 지난 50여 년간 실시해 온 꾸르실료 운동을 되돌아보며 꾸르실리따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꾸르실료 운동이 본래 지향했던 운동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50년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려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는 2016년 한 해 동안 꾸르실료가 한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으려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복음화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눔

가톨릭 상장례 해설

가톨릭 상(喪), 장례(葬禮)의 의미와 절차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이 자료는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제공한 것으로 가톨릭 상장례의 의미와 절차, 연령회장 활동요령, 교회법 등 가톨릭 상장례에 관해 꼭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회는 장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한다. 세례를 통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자들은 죽음을 거쳐 그분과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와 전구로써 서로 통공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영신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하게 된다.

병자성사

임종자가 아직 병자성사를 받지 않았다면 병자성사를 받게 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① 사제가 방문하면 촛대에 불을 켜고 화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화해성사가 끝나면 사제는 성체를 영해 준다.(성체는 모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영한다.)

임종

임종은 죽음을 앞둔 이와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다. 임종자에게는 일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이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순간이다.

① 임종이 다가오면 임종기도를 바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② 임종 때에는 큰 소리로 울거나 소란스럽게 하여 임종자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종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운명 직후의 기도를 바친다.

④ 시신에 성수를 뿌리면서 "주님, (아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고 기도를 한다.

⑤ 수시(收屍:시신을 거두는 일)를 하고 방 안팎을 정리한 다음 선종을 알린다.

수시하는 요령

① 시신을 바르게 눕히고,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한다.

② 눈을 뜨고 있으면 감겨준다.

③ 턱을 타월 같은 것으로 괸다.

④ 발을 가지런히 모아 종이끈으로 묶어주거나 벽

쪽에 붙여준다.
⑤ 손에 묵주를 감아주거나 십자고상을 (오른손에) 쥐어준다.
⑥ 홑이불이나 하얀 보(수시포)를 덮어둔다.
⑦ 성수를 뿌린다.
⑧ 방에 불을 넣었다면 뺀다.
⑨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 시에 시신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한다.
⑩ 가족, 친지, 주임신부, 구역장, 반장, 연령회장에게 선종을 알린다.

선종(운명)

가톨릭에서 돌아가셨음(운명)을 상징하는 선종(善終)이라는 용어는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줄임말이다. 다시 말해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생을 끝마친다."라는 의미이다.

첫째 날

요즈음에는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보다 병원 장례예식장이나 전문 장례예식장, 또는 성당 영안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빈소 정하기

①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 할 수 있다면 수시를 한 이후 본당 사무실에 연락한다.(수시는 선종 후 2시간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가정에서 성당 영안실로 이송할 경우
- 연령회장, 본당 사무실에 연락한다.

③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 장례식장 사무실에 천주교 예식으로 치르는 장례임을 알리고 장례를 연령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다.

④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신뢰감 속에 진행하여야 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은 뒤 운구를 하여야 한다.

빈소 만들기(영좌설치 교재 31쪽 참조)

① 검은 휘장이나 병풍을 세워 시신을 가린다.
② 큰상(제상)과 작은상(향안)을 준비한다.
③ 백포나 흰종이 등을 큰상 위에 깔고 병풍 앞에 놓는다.
④ 큰상 앞에 돗자리를 깐다.
⑤ 큰상 위에는 양 옆으로 촛대를 두어 초 한 자루씩을 꽂아 놓고 중앙에 선종하신 분의 사진(영정)을 놓는다.
⑥ 십자고상은 영정사진의 위에 건다. 만일 세우는 십자고상이라면 영정 사진의 앞에 둔다.
⑦ 돗자리 위에 작은상(향안)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 성수, 성수채를 놓고 작은상 아래에 성경, 성가책, 상장예식 책 등을 놓는다.
⑧ 선종자의 이름과 세례명을 써서 휘장 또는 병풍 중앙에 붙여놓는다.
⑨ 장례식장, 성당 등에는 준비된 시설대로 이용하고, 꽃 장식을 하면 좋다.
※ 위패에 이름과 세례명을 적어 세워두고 기도한다. 사용되는 위패는 지방(신주)을 모신 것의 개념이 아니라 이름과 세례명을 보여주기 위한 나무 궤(틀)를 의미한다.

점검사항

① 장례기간을 정한다.
② 사망원인을 확인한다(병사, 사고사).
③ 교적을 확인한다(영세자, 대세자).
④ 입/출관, 장례미사 시간을 확인한다.
⑤ 영정사진을 준비한다.
⑥ 장례용품을 상담한다.
⑦ 매장(묘지사무실 연락)
⑧ 영구차량 예약(버스/리무진)
⑨ 매장일 경우 탈관 또는 입관 매장 선택, 화장일 경우 봉안(납골)인지 산골(散骨) 또는 수목장(樹木葬)인지 선택
⑩ 유가족 중 쉬는 교우의 화해성사 권유
⑪ 운구인원 확인
⑫ 사망진단서 확인
⑬ 문상객 접대 준비

상가 표시

① 성당 게시판에 공시한다.
②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라면 조등을 설치하고 대문과 골목에 상가임을 표시한다.
③ 성당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라면 집의 잘 보이는 곳에 oo성당 또는 oo장례식장의 빈소 호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 두는 것을 잊지 않는다.

둘째 날

보통 3일 예정의 장례에서 2일째 되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유는 염습 및 입관이 이루어지고 상복을 입는 절차, 성복(成服)을 하기 때문이다.

서류

①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는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받도록 한다, 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에 문의하여 입관 전까지 반드시 발급받아 두도록 한다.(가정에서 선종한 경우이면 공의에게 발급받는다.)
② 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검안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사고사이거나 변사로 추측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공의*가 발부하는 시체검안서를 받은 후 검사(檢事)지휘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공의(公醫): 경찰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거나 사인과 사망 경위를 밝혀 인권을 도모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의학자, 흔히 경찰공의(警察公醫)라고 함.

※ 검사 지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신을 만지거나 입관할 수 없다.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① 동사무소 1통(1개월 이내 사망신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1통(장례비 청구)
③ 장지 1통(화장장, 매장신고)
④ 만일 기초생활보호수급자라면 사망진단서 원본 1부를 지참하여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와 장례비를 청구한다. 화장일 경우 무료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국가 유공자라면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서, 최종 안치장소, 대형국기 등을 입관 전에 지급받아 입관 및 장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이 경우도 화장시설 이용은 무료이다.)

염습(상장예식 3장 참조)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를 모셨던 성전과 같은 시신을 염습할 때에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아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여야 한다. 염습이란 시신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행위(습:襲)와 수시포, 수의에 싸서 묶는 행위(염:殮)를 말하며, 염습은 확실한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24시간이 지난 다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관 봉사자들은 염습 준비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염습 교육 및 시험

입관예절

① 연령회 주관으로 입관예절을 바친다.
② 입관이 끝난 후 유족들은 상복을 갖춰 입는다.

〈성복(成服)은 입관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소 차리고 즉시 성복도 가능하다.〉

③ 연령회원들과 함께 연도(위령기도)를 바친다.

연도(위령기도: 상장예식 제2장 참조)

연도(煉禱)란 연옥(煉獄) 영혼을 위한 기도(祈禱)라는 뜻으로 연옥의 연(煉)자와 기도의 도(禱)자를 합쳐 만든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 초기 때부터 사용해 온 '연도'라는 이 용어는, 신앙생활에서 토착화된 우리의 기도이며 봉사행위와 함께하는 기도이다.

셋째 날

장례

장례는 고인을 가족과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떠나보내는 예식이며, 출관과 장례미사로 되어있다.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사도예절 또는 출관예절, 고별식을 거행한 후 장지로 향한다.

출관

① 날이 밝으면 유족들은 출관 준비를 한다.
② 영구차가 주차할 공간을 미리 확보한다.
③ 영정을 모시고 가는 선두 차량도 미리 선정해 준비한다.
④ 연령회의 주관으로 출관예절을 시작한다.
⑤ 출관예절이 끝나면 운구를 시작한다.
⑥ 영정을 모시는 일은 친족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⑦ 영구(靈柩)가 차에 오르면 장례미사를 드릴 성당으로 향한다.(이때에도 기도를 드리며 가는 것이 좋다.)
⑧ 장례미사를 거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도예절(고별식)을 한 후 장지로 향한다.

장례미사

① 사제가 본기도를 바친 후 십자가, 사제, 영정, 관, 유족 순으로 입장한다.(이때 시신의 발이 제대 앞으로 향함.)
② 유족들은 앞자리에 배석한다.
③ 영성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미리 알린다.
④ 고별식 때 유족들을 포함하여 신자들의 분향과 헌화 방법을 미리 알린다.(이때 유족들은 촛불을 켜든다.)
⑤ 십자가, 영정, 관, 유족 순으로 하여 관을 돌려서 퇴장한다.

묘지로 출발 할 때

미사가 끝나고 유족부터 차에 태운다. 교우들은 빈자리에 맞추어 앉게 한다.
연도를 바칠 때 계, 응으로 바치며 성가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묘지에 도착해서

① 묘지에 도착하면 십자가, 영정, 관, 유족 순으로 행렬하여 무덤 앞으로 향한다.(이때 교우들은 성가를 부르며 따른다.)
② 굄목을 받쳐 관을 내려놓는다.
③ 관의 상(上)쪽에 십자가 든 사람이 서고, 하(下)쪽에 상을 차린다.
④ 영정, 촛불, 향, 성수를 차림. 관 주위에 유족들이 둘러서서 도묘기도를 바친다.
⑤ 무덤축복기도 후 성수를 뿌린다.

하관기도

① 관을 무덤에 내리고 가장자리에 흙을 채우는 동안 교우들은 성가를 부른다.
② 관 위에 명정을 덮은 후 하관기도를 바친다.
③ 차례로 성수를 뿌린다.
④ 유족들이 흙을 옷 또는 손 위에 받아 관 위에 뿌린다(취토).
⑤ 교우들은 계속 성가를 부르도록 유도한다.
⑥ 평토 후 종결기도를 바친다. (가족들의 일치와 교우들을 위해 자유기도를 덧붙인다.)
⑦ 타 종교인들이 많은 경우 유교 풍습에 따라 절을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해 준다.
⑧ 하산해 돌아올 때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

화장과 쇄골 · 습골, 산골 · 납골(상장예식 제6절 화장 Ⅰ화장전 Ⅱ쇄골 · 습골 Ⅲ산골 · 납골 참조)

육신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교 교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화장을 허용하며 교회의 관습대로 장례식을 거행한다.

우제(虞祭)

세상을 떠난 이를 생각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사별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북돋우는 시기를 우제(虞祭)라 한다.

- 초우(初虞): 장례를 치른 날 위령기도나 미사로 대신한다. (묘지, 납골 후 귀가하여)
- 재우(再虞): 초우를 지낸 다음날 재우를 지내며 예식은 초우 때와 같다.
- 삼우(三虞): 묘소를 찾아보고 유가족들이 모두 미사에 참여한다. 고인을 화장하여 산골한 경우이면 집에서, 봉안(납골)한 경우이면 봉안당(납골당)에서 연도 또는 맞갖은 예식을 거행한다.

탈상

우리나라의 장례에서는 3년 탈상, 1년 탈상, 100일 탈상을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49일 탈상이 많아졌다. 흔히 사십구재(四十九齋)라 하여 미사를 청하고 있으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탈상을 하고자 한다면 50일 탈상이 좋다고 본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유다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파스카 사건의 종결을 오순절에 기념했다.

히브리말에서 오순절이라는 쉰 번째 날을 Assere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결, 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오순절의 성령강림 또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파스카의 완성이며 재창조의 시작이기에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50일의 상례(喪禮)기간에 연도를 바치며 죽은 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영생을 누리기를 염원하고 이 상례기간을 마친 다음에는 하느님 안에서 통공의 삶을 다지는 것이다.

사별가족 관리

우리는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죽음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 긴장과 불안, 인생의 비애와 허망함을 느끼며 인간의 가장 큰 상실감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느낀 이러한 비통한 감정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별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고 아주 큰 변화이며 가정의 위기로 작용한다.

이 충격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유족에게는 정서와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가정과 신앙생활의 붕괴까지도 내포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사별가족을 배려하고 돌보는 봉사라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당연히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사별가족이 심리적 정서적 슬픔을 딛고 사회와 교회 안에 적응을 잘할 수 있으려면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특히 사목자와 이웃 그리고 소공동체의 성숙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령회장 활동요령

⦿ 선종소식 접수: 상주, 성당(주임신부, 수녀, 사무장) 연령회장 직접 전화

⦿ 교적확인: 사무실에 교적을 확인
※ 교적상에 등재된 교우여야 적법
※ 대세자면 교적에 등재 후 봉사 가능
※ 타본당 교우는 봉사 불가. 상황에 따라서 연도 가능

⦿ 봉사자 긴급소집: 부회장 남성 · 여성, 연락담당, 회계, 총무 등

⦿ 빈소방문: 빈소가 결정되기 전이면, 빈소 결정에 협조
※ 빈소에서 상주와 협의, 확인사항
1) ① 영정 ② 명패 ③ 고상 ④ 성수 ⑤ 본당조기, 연도책
2) 장법확인, 매장 · 화장 확인, 장지 · 승화장 예약 확인, 탈관매장 등
3) 3일장 또는 4일장 등
4) 장례신청서 내용 확인 기록
① 장례미사 시간은 본당신부와 협의 결정
② 장례신청서에 의한 교적 정리됨
5) 장례안내 내용 확정하여 사무장에게 통고 최단시간에 성당벽보로 안내하여 많은 교우에게 알리고 연도참여 기회 제공
6) 장례일정을 연령회 봉사자와 남 · 여 구역장, 레지오 꾸리아 단장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사무장)
7) 상주들 전체를 모아 촛불을 켜고 첫 예절(재배)를 올리고, 첫 연도를 바치고 본당으로 돌아온다.

⦿ 입관예절
① 입관 예정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입관용품 등(묵주) 확인한다.
② 상장예식에 의한 입관예절 집행〈126쪽〉
③ 성수예절 후 관을 덮고, 결관 후 재안치까지 확인
④ 입관 후 장례미사 전 고해성사 볼 사람 파악해 사제에게 보고하면 효과적임(사제에게 이번 상가에는 성사볼 사람이 00명 정도라고 사전예고)

⦿ 출관예절
① 발인 예정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운구용 리무진 상주와 조객용 버스 확인
② 상장예식에 의한 출관예절 집행. 성당으로, 장지로 출발〈139쪽〉

⦿ 장례미사
① 본당에 도착한 후 일정한 장소(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② 유족, 조문객 등에게 고해성사 권면(미사시작 20여 분 전)
③ 미사 시작 직전 회장은 제의실로 들어가 흰장갑 착용. 십자가잡이 참여(십자가상에 고상의 방향에 주의). 고별식 후 퇴장 때에도 십자가 선도로 퇴장함
④ 부회장 등 봉사요원 3명 앞에, 양쪽에 1인씩, 뒤에 1인이 밀고 제대 앞에까지. 정지된 운구 양옆에 촛불 3개씩 배치
• 장례미사 때에 독서자는 연령회가 전담할 수도 있고 전례분과에서도 할 수 있음
• 미사완료 후 퇴장
• 운구한 리무진, 버스 승차 확인
• 회장은 사제에게 인사하고 출발지시
• 화장인 경우 본당 출발하여 운구예식 시작〈210쪽〉
• 매장인 경우 적정장소 통과 시 운구예식 실시〈210쪽〉

⦿ 승화장 도착
① 예약시간 30분 전 도착하여 대기하면(화장장 요청 사항)
② 운전기사 측에서 사무실에 접수하고 대기
③ 통상 예정시간보다 10여 분 전부터 입화함
④ 벽제의 경우 1시간 20~30분이면 습골하여 유골 인수함
⑤ 입화 전 화장예식/ 습골(분골)예식 후 유골 인수
⑥ 유족에게 인계한 후 버스로 향한 다음 출발
⑦ 납골당, 매장지로 향함

⦿ 매장하관 예절(상장예식 245쪽), 납골예절(상장예식 292쪽)

⦿ 승화장 · 매장(묘지) 등에 도착한 후 시간을 감안하여 상주가 준비한 중식/ 식당에서 식사

⦿ 모든 절차 완료 후 감사기도(자유기도)드리고 본당으로 출발(유가족 사정에 따라 병원 장례식장일 경우도 있음)

⦿ 장례미사와 화장 · 매장이 완료되어도 장례절차는 삼우미사와 납골당 · 산소에 가서(상주가족만) 삼우예절을 바침으로써 일단 장례예절이 완료됨.

교회법

제1184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제1185조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참고〉 자살에 대해
– 가톨릭교회 교리서(2280-2283)

2280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생명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2281 자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에 상반되는 것이다. 또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난다. 그와 동시에 자살은 이웃 사랑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 사회와 맺는 연대 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다.

2282 만일 자살이 시범적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본보기로 행해진다면, 이것은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매우 악한 표양이 되는 것이다. 자살 방조는 도덕률에 어긋난다. 중한 정신장애나, 시련, 고통 또는 고문으로 겪는 불안이나 심한 두려움은 자살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2283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참고〉 장례미사를 거행할 수 없는 날
① 파스카 성삼일, 성주간 목요일
② 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을 비롯한 의무 대축일
③ 대림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의 주일

이 시대의 징표

난민,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 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순혈'과 '혼혈'과 같은 용어, 그리고 그러한 용어가 야기할 수 있는 인종우월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2007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

터키 해변으로 떠밀려 온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주검

우리에게 다가온 시리아 난민들

2015년, '시리아 난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유럽의 시리아 난민 사태 중 한 시리아 난민아동의 죽음을 보면서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런데 파리 테러를 거치면서 정부와 언론에 의해 시리아 난민은 반드시 도와줘야 할 피해자에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돌변했다. "한국 찾은 시리아 난민 75% '인도적 체류' 허가받았다."(머니투데이 2015년 9월 8일자)며 법무부는 한국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 '테러분자' 유입 루트 시리아 난민 국내 200명 유입"(파이낸셜뉴스 2015년 11월 18일)했다며 국정원은 시리아 난민들을 피하거나 배제해야 할 감시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2016년 5월 중순 현재 약 3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단지 시리아 출신 성인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반년 가까이 억류되어 있다. 난민,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2008년 난민사건 승소 기자회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한다. 난민은 결국 종교,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난민협약 가입국

난민협약의 가입국은 이들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진다. 난민의 '보호'란 난민협약의 당사국이 국제적 및 국내적 법제를 활용하여 ①난민신청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추방되거나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②모든 난민이 그가 난민으로서 부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③모든 난민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난민에 대한 영구해결책, 즉 자발적 본국귀환, 비호국내의 정착, 그리고 제3국에서의 재정착 중 하나를 협약당사국이 난민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을 거쳐 난민법을 제정했다. 현행 난민법령과 관행에 의하면 난민인정심사의 절차는 난민신청자의 신청서의 제출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면담과 조사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1차 결정 ⇒ 난민인정협의회의 권고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결정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수순을 밟도록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거의 10년의 세월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하는 등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부담하게 된 최소한의 의무를 인식하고 이행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그 후에도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는 체류를 허용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난민인권,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

2015년말 현재 지난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약 15,000명이고, 이 중 약 600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현재 5,000여 명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몇 년 전 유엔난민기구 자료에 기초한 한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난민수용의 정도는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대비 132위, 국민수 대비 154위, 영토면적 대비 112위다. 난민보호, 인권을 논하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난민신청자를 일단 제도를 악용하는 소위 '불법체류자'라는 바라보는 인식은 난민관련 행정을 지배하고 있다. "원고들은 … 불법체류자로서 본국에 송환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염려에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추단된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판례의 내용이다. 난민으로서 본국에서 박해가능성이 있는지만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짜 난민신청자로 이들을 낙인찍고 이들에게 2차적인 가해를 가한다.

여러 유엔인권기구에서도 한국의 난민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대표적으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2009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난민신청처리절차의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그리고 "난민인정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점과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아직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본 위원회는 더 나아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증원을 포함하여, 개정된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 ⓑ난민절차를 표준화하는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 등을 통하여 "난민지위인정의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난민지위부여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채택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난민보호와 관련된 법제와 관행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난민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였다가 아시아 최초라는 난민법이 만들어졌다. 난민인정자의 수도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처음 두 명 정도의 담당 직원이 있던 시스템에서 현재는 법무부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과가 존재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전담재판부도 생겼고, 한두 명의 변호사가 난민사건에 관여하던 시기가 상당 기간 계속되어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난민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도 소수 직원의 일본사무소 연락사무소에서 수십 명 직원의 한국사무소가 됐다. 판례와 논문도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팽배하는 외국인혐오주의와 인종주의

그런데 한국사회는 점점 외국인혐오주의와 인종주의가 팽배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2012년 10월 네이버에 '난민법'이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난민법은 2011년 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난민법'이 급상승 검색어가 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혐오주의 경향이 강한 온라인 카페 일간베스트저장소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결과였고, 며칠 동안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에 "난민은 성범죄자들이다.", "난민은

2008년 난민법 제정안 공청회

AIDS를 한국에 퍼뜨린다." 등의 수만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난민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관련 인권단체들에 대한 욕설과 협박성 글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법무부는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해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지역이 아닌 헬기장, 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외딴 곳에 난민지원센터의 설치를 진행해 왔고, 그나마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명칭도 '출입국'지원센터로 둔갑시켰다. 완공 전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센터 입소자는 두 단계에 걸쳐 '위해성'을 검증한 사람들이라며 난민신청자의 공항 입국심사와 시설 이용 심사를 '위해성' 심사로 둔갑시켰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난민들이 만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공식 난민 지원기구 중 하나인 유엔한국재건기구(UHKRA: 1950~1960년) 등이 국내난민 · 피난민 보호에 나서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계속 존립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정치적 난민이었던 김대중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다수의 난민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대한민국이 난민을 대하는 법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평신도 연구

십자가의 손길로 오는 희망

정진호 프란치스코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십자성호는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수난하는 우리의 특권으로 인정하는 신앙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인류의 고통을 멀리 치워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과 몸부림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의 길을 찾을 줄 모르는 70년 분단의 어리석음이든, 인터넷 공유경제 시대에 무너져 내리는 산업사회의 독점력에 집착하는 사회갈등이든, 우리에겐 복음의 빛이 절실합니다.

그분의 힘에만 의지해야

우리는 앞이 환히 보이는 쉬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가야 할 삶의 길 위에는 수많은 함정과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고함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마련한 것들일 수도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훈육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길에서 시련과 노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존엄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시련은 십자가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수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역사와 인간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압도적인 시련과 고통의 연대기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실망과 재난의 기나긴 기록입니다. 신약성경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보이는 하느님을 인간이 배척하고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도망가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기록과 드라마를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는 진짜 스토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쉼 없이 하느님의 구속 사업이 계속됩니다. 성경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하나의 삶 안에서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 사람들을 훈육하고 계십니다. 일이 꼬이고 응어리가 뭉쳐지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이나 이기적인 고집 때문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매듭을 풀어 안전한 곳으로 다시 이끌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나약한 겁쟁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과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학습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불가능을 알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자연을 경탄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창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성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겪어본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이웃을 보면 연민의 정을 일으켜 도움의 손길을 나누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느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뼈가 부딪히는 가난을 알고 계십니다. 잠근 열쇠를 들고 불안해하는 탐욕을 보고 계시며 모두가 적으로 보이는 불안을 모른 체하지 않으십니다. 쭉정이는 타작마당에서 거두어 불구덩이에 넣으실 것이며 알곡만 저울에 달아 곳간에 보관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 따가워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잠자리 없는 네 형제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꾸고 자연을 가꾸고 풍요를 함께 누릴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대면하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굽지 않고 바르고 가볍게 똑바로 걸어나갈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느님의 영에 의지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힘을 주시는 그분의 힘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십자성호로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십자성호에 두었습니다. "죄 많은 나의 육신을 가로질러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모든 좋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 잠자고 있던 신성한 힘을 새롭게 하여 고통을 견디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높고 참된 용기가 마침내 솟아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작고 하찮고 반복되는 일상의 불편까지 거룩하게 만듭니다.

토리노의 성 막시모는 모든 고통의 마감을 위해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우리는 십자성호를 그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리라 기대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신도에서부터 사제와 주교, 교황에 이르기까지 견디어내는 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하여 교회로 가서 성사에 참여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 했던 것처럼 하느님께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의 십자성호로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간직합니다.

성 요한 비안네 사제는 두 개의 십자성호 사이에 하느님께서 언제나 현존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성찬의 전례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고 삶은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하느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갈라섭니다. 교회는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해 주고 가르치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견딜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탈출의 수단이 무엇이 되었든 다 제공하려 합니다. 술, 섹스, 마약, 도박, 사치, 이런 것들로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의 정신이 번뜩 들게 묻습니다. "생명이신 그분 자신이 내려와 죽음을 당하셨다. 빵이신 그분이 내려와 배고픔을 겪으셨다. 길이신 그분이 내려와 여행의 고달픔을 견디셨다. 샘이신 그분이 내려와 목마름을 경험하셨다. 그런데 네가 노동과 고통을 거부하겠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인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에 하느님의 힘과 구원적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3-5) 바오로 사도는 언제나 영광을 바라보려 노력했지만 자신이 육신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많은 고통을 겪으리라는 것과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로마 8,17-18)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용기를 갖도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유일한 탈출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은 인간으로서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1코린 10,12-13)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고통을 견디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부러진 길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길은 시련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고통을 피하지 않는 똑바로 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고통이며 멈춰 서지 않는 시련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1코린10,16)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의 몸과 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견디셨던 대로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자 그분과 함께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녘 형제의 고통에 동참하면

통일의 길은 머지않습니다. 북녘 형제들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면 말입니다. 1839년 성 정의배 마르코는 우연한 기회에 앵베르 주교와 모방, 샤스탕 신부가 순교하는 모습을 새남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 와서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며 모욕과 멸시와 학대를 달게 받고 있으니 그들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는 천주교 서적을 구해 읽기 시작하여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새남터에서 1866년 3월 11일 72회 생일에 그가 군문효수형을 받을 때 그의 곁에는 북녘 황해도 출신 22세의 성 우세영 알렉시오도 함께 칼을 받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노동이 길이다!”

– 청년들의 미래에 희망과 책임을 주는 일에 관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총회가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꼰벤뚜알 피정의 집에서 열립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 특히 가톨릭 청년들이 하느님 안에서 자기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으며 예수님의 사도로서 세상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청합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협의회:
International Coordination of Young Christian Workers

‘청년노동자 교육과 복음화’ 사명을 가진 가톨릭노동청년회(이하 가노청)는 교황청의 인준을 받은 국제운동으로,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존엄한 삶의 환경을 일구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6년 여름 대한민국 서울에 전 세계 가노청 리더들이 모여 국제총회를 열고, 세계적으로 경험되는 청년들의 삶과 노동의 현실을 복음의 가치에 따라 연구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복음화 활동을 계획합니다. “Work is the Way – Giving Young People Hope and Responsibility”라는 주제로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꼰벤뚜알 피정의 집에서 진행되는 이번 제9차 국제총회는 가노청 서울연합회가 주관하며, 유럽,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중동에서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가노청은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실제 삶의 환경을 다룹니다. 청년들은 독립을 이뤄가며 갖는 기대와 어려움을 가지고, 일을 배우는 견습생의 세상으로 또는 정규노동 · 임시노동의 세상으로 또는 실업의 세상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실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삶에 대한 선택을 제한받습니다. 청년노동 환경은 취약하고 불안정하며, 실직과 급여 삭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착취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합니다. 낮은 삶의 질, 불안정한 노동, 과도한 경쟁에 놓인 청년들은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타인의 삶에 도움을 주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여러 번에 걸쳐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청년들을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하는 현실을 언급하시며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 우리 시대의 세계가 종종 비참한 방식으로 만들어낸 사회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성년에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외침이 부유한 이들의 무관심에 파묻혀 들리지 않게 되어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은 너무도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 희년에 교회는 이러한 상처들을 돌보아주라는 부르심, 그들의 상처에 위로의 기름을 부어 아픔을 덜어주고 자비로 감싸주며 연대와 세심한 배려로 치유하여 주라는 부르심을 더욱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
> 모욕적인 무관심이나 우리의 정서를 마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습관과 파괴적인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눈을 뜨고 세상의 비참함을, 존엄을 박탈당한 우리 형제자매들의 상처를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외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어 그들이 우리의 현존과 우정과 형제애의 온정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고, 우리의 위선과 이기심을 감추려고 기꺼이 빠지는 무관심의 장벽을 모두 함께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자비의 얼굴, 15항)

2015년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가 함께 채택한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제8번째 목표는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노동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노동과 고용은 청년, 여성과 같은 사회 약자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건강 및 기아에 관한 목표들을 달성 가능하게 합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적 발전뿐 아니라 빈곤 근절을 이루는 데 ‘노동’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수천만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거부당한다면, 우리는 지속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을
사회 안으로
포함시키며,
미래를
꿈꾸고
세워나가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이다.

이번 국제총회를 통해 가노청은 "청년들은 필요한 존재들이자 대체될 수 없는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청년들을 사회 안으로 포함시키며, 미래를 꿈꾸고 세워나가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Work is the Way)이라는 메시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하고 인류의 보편적 발전과 번영을 이룰 새로운 UN 개발 어젠더는 다양한 분야와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노력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노청은 가톨릭의 '사람중심' 가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 가치에 기반을 둔 평신도 운동으로서, 청년들을 변화의 주역들로 양성하고 이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갖는 청년들의 책임과 참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역사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50주년이 되는 2015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포로 자비의 특별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문은 자비의 문이 되어 활짝 열렸고 우리 평신도는 순례자가 되어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할 것입니다(자비의 얼굴, 2항 참조).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 특히 가톨릭 청년들이 하느님 안에서 자기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으며 예수님의 사도로서 세상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청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당신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하느님(자비의 얼굴, 25항)의 은총이 모든 평신도 형제자매님들께 가득하기를 빕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 동작구 만양로 18길 27
☎ 02. 815. 2483 koreaycw@gmail.com

가노청 국제총회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2-635788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국민은행 375301-04-001379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개회 미사 안내

가노청 국제총회를 후원하고 지지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8월 20일(토요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염수정 추기경 집전)

광주대교구 흑산도본당 사리공소

촬영
송권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회원

흑산도 사리[沙村]는 다산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1758~1816년)이 13년간 유배생활을 하며 지낸 곳이다. 정약전은 이곳에 '사촌서당'이란 서당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며 바닷물고기들의 생태를 다룬 《자산어보(玆山魚譜)》를 집필하였다.

사촌서당 아래 있는 천주교 사리성당은 지금은 공소가 되었고, 진리에 1958년 흑산본당이 설립되었다. 돌담장 길이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임을 보여주듯 사리공소에도 아름다운 돌담장과 돌장식이 보인다.

- 소재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사리 216
- 본당: 흑산본당
- 전화: 061. 246. 3540(사리공소)

특집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현대의 순교, 순교자

순교,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삶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순교는 사랑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순교가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 이웃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내어주는 것도 현대적 의미의 순교라고 할 수 있다.

순교, 자신의 목숨으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

그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아니, 은총이었다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 그조차도 나중에서야 든 생각이지만….

"이곳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전부터 이들의 문화 속에 슬그머니 복음화의 밑거름을 뿌려 놓으셨습니다."(이태석 신부의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중)

영화 〈울지 마 톤즈〉로 널리 알려진 고(故) 이태석 신부(1962~2010, 살레시오회)와의 인연은 그의 고향인 부산에서 시작됐다. 1980년대 중반 부산교구 고등학생연합회 활동을 하던 우리들에게 그는 이미 그 '유별남' 또는 '독특함'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왜 아니겠는가, 모두가 힘겨워하던 시절 무려 형제가 10남매나 됐으니…. 그 열 중에 한둘은 이리저리 아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태석 신부는 당시 부산에서도 '달동네'로 알려져 있던 남부민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삶이 얼마나 곤고했을지 짐작이 간다. 그의 어머니는 자갈치시장에서 삯바느질을 해 자녀들을 키웠다.

어려움 속에서도 학창시절 내내 송도성당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의대생이 됐다. 여기까지였다면 그는 우리 또래에게도 편한 선배나 형이 됐을 터였다. 그런데 이런 반전이 있을까, 군의관으로 군 복무을 마치고 1991년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돌았다.

그 이후는 잘 알려진 대로다. 2001년 6월 서울 구로3동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그는 그해 10월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떠났다, 마치 미리 정해진 길을 찾아가듯….

병실 12개짜리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 200~300명의 환자를 돌봤다. 시간 날 때마다 인근 80여 개 마을을 순회하며 가난 때문에 목숨줄을 놓아야 하는 이들의 삶을 거들었다. 학교를 짓고, 초 · 중 · 고교 12년 과정을 꾸려 직접 수학과 음악도 가르쳤다. 기숙사도 짓고 톤즈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악기도 가르쳤다. 톤즈 아이들에게 '쫄리'(John Lee, 이 신부의 별명) 신부로 불린 그는 그렇게 가난한 이들과 하나가 되어갔다.

그러나 2008년 11월 휴가 차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장암 진단을 받고 다시는 톤즈의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만다. 투병 끝에 2010년 1월 14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도 그는 아프리카에 두고 온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 신부가 자신의 몸도 돌볼 여유 없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 하느님께로 돌아간 지 6년, 그로 인해 무수한 생명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음을 본다. 이태석 신부의 삶과 '순교'를 연결시키기에 조금도 어색함이 없다. 이웃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곧 순교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신부의 삶은 현대의 가장 완전한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웃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곧 순교이다.

순교 = 증거

– 증오가 온 세상 덮을 때에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 증거, 지난 2000년간 20세기 순교자 절반 이상 차지

라틴어 '마르티리움martyrium', 곧 순교는 그리스어 '마르티리온martyrion'에서 비롯된 말이다. 본래 뜻은 '증언' 또는 '증거'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는 순교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진실성을 죽음으로써 증명하는 행위다. 그런 면에서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성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박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독재정치, 민족주의 부상, 배금주의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

2002년 '제네바 보고서'에 따르면, 2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선언에서 정의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그리스도인 대상 폭력 사건으로 확인된 사망 사건이 최소 1건 이상 발생한 국가만 해도 40개 나라가 넘는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 구호'(Aid to the Church in Need, 이하 ACN) 이탈리아지부가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000명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다.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2002년 한 해에만 12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됐다.

ACN 보고서는 특히 아시아와 중동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 안에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정한 종교자유 침해 특별관심 국가 11개국 중 6개국이 들어있다. 특히 ACN은 북한에서 10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가톨릭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납치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1999년 독립한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점령 하에서 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다.

교황청 해외선교연구소가 발행하는 선교지 '몬도에미씨오네'에 따르면, 전 세계 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정권의 골칫거리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교회 내 관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독재정치 ▲민족주의 부상 ▲배금주의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는다. 한마디로 반그리스도적인 흐름과 이 같은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인류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순교자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7,00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4,550만 명이 20세기 들어 희생됐다. 인류의 이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양된 시대에 반이성적인 일이 벌어졌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20세기의 가톨릭 순교자들》의 저자 로버트 로열(Robert Royal)은 20세기는 그리스도교 순교 역사 안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안토니오 소치는 저서 《새 순교자》를 통해 "20세기는 그리스도교 순교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시기였다."고 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지난 1998년 11월 대희년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순교자들의 증언을 기리고 그들을 열렬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현대의 순교자들이 보인 순교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후 2000년 5월 7일 콜로세움에서 1만 2,692명의 그리스도인을 '신앙의 증인'으로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20세기 들어서 초세기 순교자들보다 훨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웅적으로 신앙을 증거했다."고 밝혔다.

대희년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꼽힌 신앙의 증인 선포식에서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등 교파를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이 망라된 명단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나치에 의해 희생된 에디트 슈타인,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 디트리히 본 회퍼를 비롯해 1980년 산살바도르에서 살해된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등이 포함됐다.

특히 6·25 전쟁의 희생자를 중심으로 1901년 제주 신축교난 당시 사망한 가톨릭 신자 206명과 성공회 신자 6명 등 215명의 한국교회 현대 순교자도 포함됐다.

20세기 들어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순교자'들이 대거 나타나게 된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공산주의·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의 출현, 독재정치, 내전 등 다양한 배경을 들 수 있다.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콜베 신부뿐만 아니라 1939년부터 1943년 사이 100여 명의 독일 예수회 신부들이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주로 남미의 독재정치 아래서 순교가 이뤄졌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등을 거치면서 20여만 명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살해됐다. 아시아지역에서 순교자가 생긴 주된 이유는 이슬람과의 충돌이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인종 분쟁으로 많은 희생자가 생겼다.

현대의 순교

1999년 12월 24일 대희년이 개막되면서 열린 성베드로대성당의 성문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장식돼 있었다. 순교의 역사로 일컬어지는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아픔을 보지 못한다면, 애써 외면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 신학자 발터 카스퍼 추기경(전 교황청 일치평의회 의장)은 현대적 순교 개념을 '그리스도교적인 동기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자유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투신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광(이냐시오) 고려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 제시, 공정한 경제발전을 위한 가르침, 사회적 불평등의 척결, 약자의 우선적 선택과 존중, 문화적 소외지대 척결과 편견 극복을 위한 노력에서 순교 정신의 계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져보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박해와 순교가 동시에 이뤄지고, 늘 부활이 일어나는 현장이 아닐 수 없다.

두물머리복음화연구소 황종렬(레오 · 대구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소장은 "일상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느님 살림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것이 박해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연대하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의 순교"라고 말한다.

황 소장은 아울러 "박해와 순교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에서 순교신심을 가다듬어 나갈 때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홍 신부(부산교구 오륜대순교자성지 담당) "옛날에는 박해를 이겨내고 목숨을 내놓는 것이 순교였다면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순교"라고 강조했다.

신앙 선조들의 순교의 피 위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면 우리도 매일의 작은 순교로 이웃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새 생명의 물을 주고, 새 생명의 불을 붙여주는 것이 오늘의 순교다.

이야기

북한생활 체험기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으니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시편 31,16)

박정일 주교 마산교구 원로사목자, 전 마산교구장

38선이 생긴 후 많은 북한 신자들이 종교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신부님들 중에는 한 분도 월남한 분이 안 계셨다.

1944년 12월
평양 숭인상업학교 5학년 졸업할 때

1945년 8월 15일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현재는 성모 승천 대축일) 우리 5명(당시 덕원신학교 신학생이었던 석원석 마르코와 이경호 안셀모,* 유치원 교사였던 임 가타리나, 그리고 나 - 그때 나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신학교 지망생이었다. - 와 동갑내기 사촌 누이동생 - 현재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박 요셉 수녀)은 이른 새벽에 숙천읍을 떠나 영유본당을 향하였다. 당시 숙천본당에는 본당신부님이 안 계셨다.

1940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1941년에 당시 숙천본당 주임이었던 메리놀회 신부님이 미국으로 강제추방당하고 본당신부가 계시지 않게 되자 숙천본당은 폐지되었으므로, 숙천읍에서 약 30리 거리 되는 영유본당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영유본당 주임은 홍도근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셨다.** 홍 신부님은 나와 백민관 테오도로 신부(평양 숭인상업학교에서 동기동창이었으며, 현재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자)가 사제성소를 받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시다.

일본의 패망과 소련군의 진주

한여름 더위에 공심재(당시에는 성체를 영하기 위해 밤중부터 물도 마시지 않았다.)를 지키며 땀을 흘리면서 30리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두 신학생, 특히 그중 한 분인 석 마르코 신학생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피곤을 잊고 걸었던 기억이 새롭다.

미사 후 12시에 우리는 본당신부님의 권유로 신부님 방에 모여 라디오로 일본 천황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는 성명 발표를 들었다. 자리에 모였던 우리는 모두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일제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에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숙천읍에서 20리나 떨어져 있는 벽촌에 살면서 라디오도 듣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는 그야말로 꿈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우리는 또 30리 길을 걸어 고향으로 향하였다. 중도에 철도 연변을 지나면서 일본군 패잔병들이 가득 탄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집에 도달한 것은 이른 저녁이었다. 그런데 동리 입구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동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태극기를 설명하고 계셨던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3·1운동 당시 고향 사람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수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신 경력이 있으시다. 출옥 후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장롱 깊이 고이 간직하고 계셨다. 할아버지의 깊은 애국심을 새삼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다. 그런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웠다. 나는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동안 서당 훈장이셨던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배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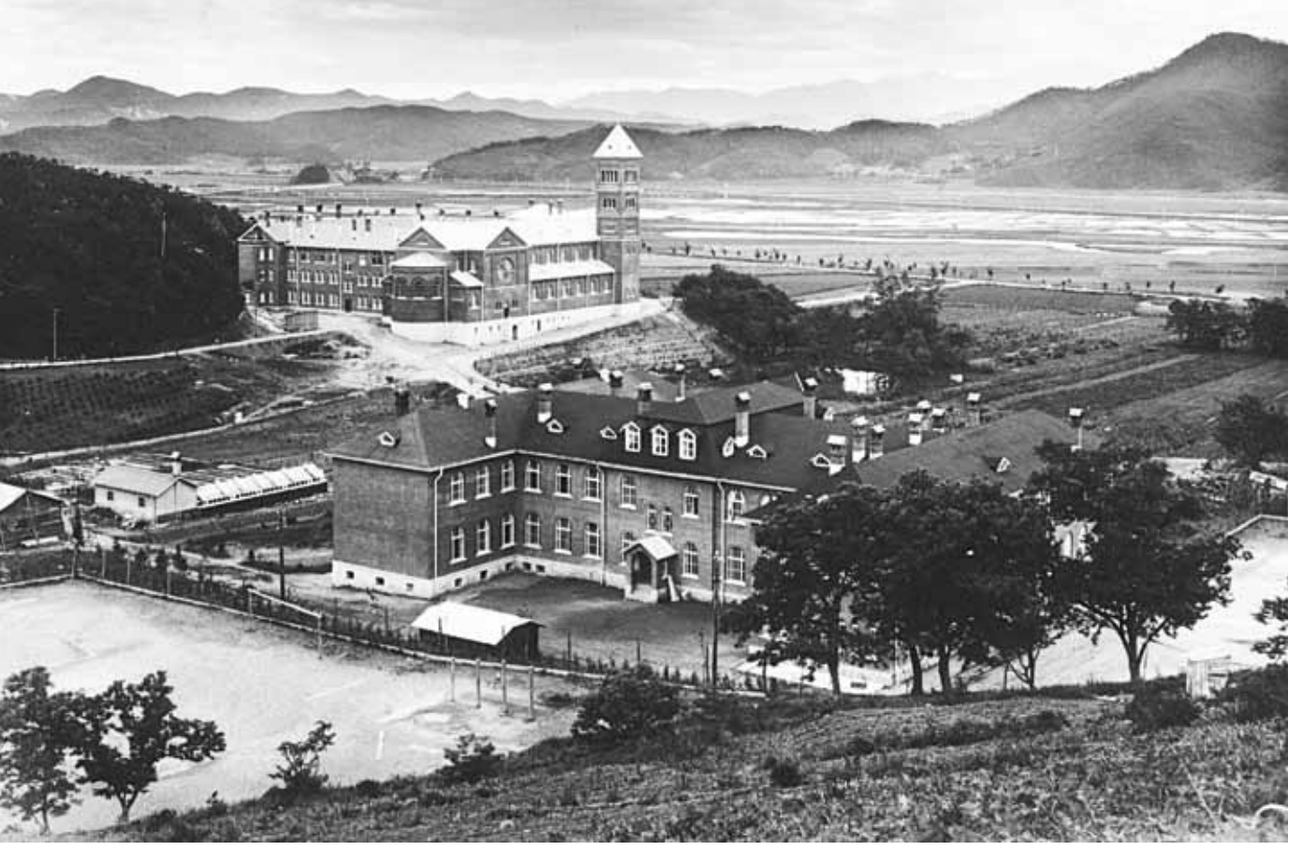
종전이 되자 38선이 생기고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소련군이 처음에 진주하고 김일성을 앞세워 공산정권을 수립하였을 당초에, 그들이 표방한 슬로건은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였다. 종교는 물론이고 모든 인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책을 선전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그 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나 제재를 느끼지 못했었다.

"목자인 사제가 떠나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차차 공산주의의 본색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부자들을 숙청(북한에서 반대자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하는 등 점차로 공산혁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산당을 조직하여 그 사상 선전에 열을 올리고 특히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산체제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북한 공산정권이 본격적인 종교 탄압을 시작한 것은 1949년부터였다고 생각된다. 1949년 5월 북한의 유일한 신학교였던 덕원신학교(독일에서 진출한 성 베네딕도 수도회가 운영. 나는 1948년 9월에 별과에 입학하였다.)를 강제로 폐쇄하고 신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으며, 독일 선교사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투옥시켰다. 그뿐 아니라 마침내 평양교구장 홍용호 프란치스코 주교님을 납치한 것도 같은 시기였다. 다음 해에 평양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를 폐쇄하고 수녀님들을 모두 귀가시켰으며, 주일 집회도 금하였다. 주교님을 납치하고 나서 그 후 도시부터 차례로 몇몇 신부님을 납치하였고 6·25 직전에는 평양교구 모든 신부님들을 한 분도 남김없이 납치하였다.***

38선이 생긴 후 많은 북한 신자들이 종교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신부님들 중에는 한 분도 월남한 분이 안 계셨다. 왜냐하면 홍용호 주교님의 뜻이 "신자들이 몇 사람이라도 남아있는데 목자인 사제가 떠나서야 되겠는가!"



덕원수도원과 신학교(앞쪽), 필자는 1948년 9월에 덕원신학교 별과에 입학하였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훌륭한 평양교구 선배 신부님들의 모범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 석원석 마르코와 이경호 안셀모 두 신학생은 사제가 되어 본당 주임신부로 계시다가 6.25 직전에 피랍되었다.

** 홍도근 신부님을 비롯한 다른 모든 평양교구 신부님들도 6.25 직전에 피랍되었으며,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신부님들이 '근현대 신앙의 증인'(일제와 6·25사변 때의 순교자들을 이르는 말)으로서 시복되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 이른 시일 안에 시복의 영광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다.

재미있는 일화 하나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였을 때의 일이다. 어떤 소련 병사들이 손목시계를 5개 또는 그 이상 팔목에 끼고 다니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다. 그 시대만 해도 손목시계가 귀할 때였으니 소련의 미개한 농촌 병사들에게 있었음직한 일이었으리라!

덕원신학교와 베네딕도 수도원 폐쇄

나는 1948년 9월에 덕원신학교 별과에 입학하였다. 신학교의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소신학교 5년을 졸업한 후, 라틴과 2년을 마치고 철학 2년과 신학 4년을 마치고 사제가 된다. 그런데 나는 소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우지 못하였다. 그래서 별과생으로 입학하여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에서는 9월이 새 학년 시작이었다. 새 학년 시작 피정을 당시 평양교구장 홍용호 프란치스코 주교님께서 맡아주셨는데 30분 강론을 1분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시작하고 마치시는데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겨울방학을 지내고 봄학기를 한 달 반쯤 지난 어떤 날 우리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산정권에 의한 신학교 폐쇄! 1949년 5월 7일 아침 나는 평상시와 같이 기상종과 함께 세면

실로 내려갔다.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공동침실과 공동세면실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부제와 상급생들이 세면실에 보이지 않아서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밤중에 경찰들이(보위부원들이) 베네딕도 수도원(우리 신학교와 약 500미터 거리에 있었다.)에 난입하여 독일인 신상원(사우어) 보니파시오 아빠스님를 비롯하여 수도원장, 부원장, 신학교 교수 및 독일인 수사들을 몽땅 납치하여 갔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도 경찰들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다.

부제와 상급생들은 밤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면실 내의 분위가 이상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경찰들이 두세 명씩 신학교 주변을 지키며 배회하고 있지 않는가! 공포감이 엄습하여 왔다. 그리고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소련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종교가 무서운 탄압을 받았다는 것쯤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었으니….

그 일이 있은 후 5일 동안 교내생활은 미사와 수업만 없었을 뿐, 기도와 식사 등 이전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침실에 감금되어 운동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는 것만 허용되었다. 상급생들은 어린 학생들이 밤에 혼자서 화장실에 가기가 무서우면 친구를 깨워 함께 가라고 친절하게 타일러주기도 하였다.

그동안 부제님들과 상급생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수고를 하였지만 별 성과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내에 있는 성물(성작, 성광 등)을 주방 근무 자매들을 통하여(그들은 자가에서 출퇴근하였다.) 몰래 밖으로 내보내는 수고를 하였다(당시 차부제였던 윤공희 대주교님의 증언). 하급생인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만 상급생들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다.

5월 13일 금요일 갑자기 "학교가 폐쇄되었으니 모두 귀가하라."는 명이 내렸다. 그리고 짐은 싸되 성물(묵주, 성상, 성경 등)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지시대로 짐을 싸고 캄캄한 밤에 수도원 성당 앞마당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고 뿔뿔이 헤어져 동네 교우들 집에서 자는 둥 마는 둥하고 14일 토요일 아침 9시에 덕원 역에서 평양행 기차를 탔다. 불과 반년 전에 희망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덕원을 향했던 그때와는 사뭇 다른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의 지루한 여행길이었다. 저녁때쯤 평양에 도착하였다.

홍용호 주교의 납치와 월남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불길한 소식이었다. 홍용호 주교님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홍 주교님께서는 5월 8일 덕원신학교와 수도원의 폐쇄사건 및 사우어 아빠스님의 납치사건을 접하시고 북한 내무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황으로 미루어 홍 주교님의 납치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홍 주교님께서는 5월 14일, 그러니까 덕원신학교와 수도원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주일 후, 수행원 없이 서포(평양에서 약 20리 되는 곳)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원'에 종신서원자들 면담을 하러 가셨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귀가하시는 도중에 납치되신 것이다. 교구에서는 주교님의 신변을 염려하여 두 소년(김운삼, 송운철)과 개 한 마리를 보내 주교님을 대동케 하였다. 그런데 귀가 도중에 주교님뿐 아니라 두 소년도 함께 납치된 것이다. 그 납치 상황은 어떤 채소장사가 증언한 것이다.

평양에 도착한 우리 신학생들은 그날 밤을 서평양 기림리에 있는 주교관에서 지냈다. 주교님께서 납치되신 후 부주교(오늘의 총대리)였던 김필현 루도비코 신부님께서 교구 책임을 맡고 계셨다.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으신 신부님께서는 여러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월남하여 다시 신학교에 가겠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다.

가지 지시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신학교가 폐쇄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니 가능하면 월남하여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의 심금을 울렸다.

나는 다음 날 평양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북쪽 촌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나의 심정은 참으로 암담했다. 신학교 폐쇄 등 깊은 사정을 아실 리 없는 부모님과 형제들은 아무 말씀 없이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살던 동리가 기차역에서도 8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벽촌이라 밖의 소식, 특히 귀가한 동료들의 소식, 동료들의 월남 소식 등을 알 길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안일을 도우며 무료하게 두세 달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사제의 꿈은 잠시도 놓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학교 폐쇄 후 제일 처음으로 월남을 시도한 것이 지학순 다니엘(당시 상급반 신학생, 초대 원주교구장 주교)이었다. 그는 귀가 후 즉시 5월 말경과 9월에 두 차례 월남을 시도하였으나 두 번 다 실패하였다. 당시는 38선에서 월남하다 붙들리는 사람을 4~5일이나 1주일간 구류하였다가 석방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후 1950년 1월에 지 다니엘 신학생은 윤공희 당시 차부제와 함께 좋은 안내자를 만나 월남에 성공하였다.

나는 집에서 부모님과 월남에 대하여 의논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월남하여 다시 신학교에 가겠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나의 의논 상대가 되어 준 것은 사촌누이 동생 데레사(현재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박 요셉 수녀)뿐이었다.

답답한 나날을 보내면서, 여러모로 수소문한 끝에, 다행히 평양 사는 어떤 분한테서 안전하게 월남을 주선한다는 교우 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다. 답답하던 차에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가 좋은 소개를 받고 그날 밤을 그분 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게 또 무슨 벼락인가! 하필이면 그날 밤에 보안서원이 불심검문을 나온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관이나 호텔뿐 아니라 다른 가정집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계를 내야 한다. 자고 있는 나를 깨우며 누구냐고 묻는 것이다.

다행히 집 주인이 기지를 발휘하여 "먼 데 사는 나의 조카 되는 사람인데 밤늦게 집에 와서 미처 신고를 못했다."며 백배사죄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참으로 아차 하는 순간이었다. 안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월남 계획을 짜기 시작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배움

인문학 강좌

최양업 신부와 천주가사 〈사향가〉

김문태 힐라리오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학수고대하던 희소식이 마침내 도착하였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안건이 2016년 3월 14일 추기경과 주교들의 회의를 통해 교황청 시성성의 성덕 심사를 통과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시성성 교령을 2016년 4월 26일에 승인함으로써 최양업 신부는 가경자(可敬者, Venerable)로 선포되었다. 방인사제로서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양업 신부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뒤를 이어 복자와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최양업 신부는 충남 청양 다락골에서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와 복자 이성례 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836년 김대건, 최방제와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 김대건 신부가 1846년 병오박해 때 순교한 후, 1849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하여 11년간이나 숨어 다니며 사목하다 선종하였다.

그는 양반계급의 독선, 오만, 횡포, 부도덕이 모든 악의 근원이고 온갖 비참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각종 세금과 수탈과 착취에 짓밟혀 고통받는 가난한 백성들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였다. 이러한 신자들에 대한 사랑과 사목적 열정은 매년 7천 리가 넘는 여정을 지속하게 한 근원이었다. 그는 귀국 직후인 1850년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5천 리 길을 걸어 다니며 3,815명에게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집행하였다.

그의 편지에 따르면, 당시 신자들은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암송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외에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와 성녀 바르바라의 성인전, 조선 순교자들의 행적, 한글로 쓴 신심서 등을 암송하였다. 한문을 해독할 수 없었던 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며 신심을 다질 수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최양업 신부는 한글로 된 문서가 교리교육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밝힌 바 있었다.

최양업 신부는 더욱 효율적인 교리교육을 위해 한글문서 이외의 또 다른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8~10세의 어린아이들조차

> “한글이 교리 공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기가 아주 쉬워서 10살 이전의 어린이들이라도 글을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이 사목자들과 신부님들의 부족을 메우고 강론과 가르침을 보충하여 줍니다. 쉬운 한글 덕분으로 세련되지 못한 산골에서도 신자들이 빨리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구원을 위한 훈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배티사적지, 《최양업 신부의 서한》, 천주교 청주교구, 1996, 137쪽)

교리문답 전체와 긴 경문을 암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반면에 노파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재능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흐려서 경문을 하루 종일 배우면서도 한마디도 입에 담지 못하며 애쓰는 모습을 안쓰러워하였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사본문답을 다 떼지 못하는 신자도 있다며 한탄하였다.

그는 은사인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그러한 형편을 전한 후 ‘여러 가지 음향으로 소리가 잘 나게 연주할 수 있는 견고하게 만들어진 악기’를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그가 교리교육을 위해 특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즉 노래를 통해 더 쉽게 교리서와 경문의 내용을 암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 중의 하나가 천주가사 〈사향가(思鄕歌)〉다. 사람이 본향을 그리워하며 현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을 당시에 유행하던 가사로 만든 문학작품이었다. 다만 오늘날의 연구자들 간에 최양업 신부가 이 노래를 직접 창작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향가〉는 4음보 416행의 방대한 가사작품이다. “어화 벗님네야 우리락토 찾아가ᄉᆡ”로 시작하는 1~32행에서 현세는 눈물의 골짜기이자 귀양살이하는 곳으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영혼의 세 원수인 육신 · 세속 · 마귀, 그리고 일곱 가지 죄의 근원인 교만 · 인색 · 음란 · 질투 · 분노 · 식탐 · 나태 등을 물리치고 천주를 만날 수 있는 본향을 그리워해야 한다고 노래한다. 이어 33~55행에서 헛된 즐거움에 빠져 살다 죽을 때에 이르러서야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소용이 없다고 질책한다. 56~97행에서는 세상살이하면서 시시때때로 엄습해 오는 칠죄종인 교만은 겸손으로, 인색은 베풂으로, 음란은 정결로, 질투는 사랑으로, 분노는 참음으로, 식탐은 담박으로, 나태는 부지런함으로 방어하라고 훈계한다.

이어 98~149행에서 세속에 물든 이들이 천주와 참 도리를 알지 못하고, 습관과 체면으로 허영과 쾌락에 빠져 죽음 · 심판 · 천당 · 지옥을 모르고 있는 처지를 안타까워한다. 150~185행에서는 적대자들이 부모도 없고 군주도 없는 무부무군의 삶을 추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비판하며 조롱한다. 이에 시적 화자는

노래를 통해 더 쉽게 교리서와 경문의 내용을 암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만들어진 노래 중의 하나가 천주가사 사향가다.

186~234행에서 우물 안 개구리이자 밭도랑 물고기 신세인 적대자들이 하늘이 얼마나 큰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어찌 알 것이냐며 반박한다.

뒤이어 235~275행에서는 천주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보은하는 방도라고 노래한다. 276~333행에서는 천주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잘 먹고 잘 입기, 탐욕과 쾌락, 인색과 음란에 빠져있다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334~384행에서는 잠시 머물다 갈 세상에서 체면을 위하고, 즐거움을 탐하며, 마귀를 섬기다 종국에는 심판과 앙화와 형벌로 인한 무궁한 회한을 당할 것이라 경고한다. “텬당길흘 바로ᄎᆞ자 ᄃᆡ부모ᄅᆞᆯ 보사이다”라고 마무리하는 385~416행에서는 사람들이 육신보다는 영혼을, 현세보다는 영원한 세상을, 세상 벼슬과 재물보다는 천당 벼슬과 재물을 생각하며 살아 천당에 가서 대부모인 천주를 만나 영복을 누리자고 권유한다.

〈사향가〉는 당시의 신자들에게 널리 읽혔던 교리서인 《주교요지》에 기반을 두고 창작되었다. 《주교요지》는 주문모 신부의 인가를 얻어 복자 정약종이 한글로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교리서였다. 이러한 교리서의 내용을 더욱 용이하게 ‘조선시대’의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한 〈사향가〉는 신자 교육뿐만 아니라 비신자와 적대자들을 향한 전교와 호교의 목소리를 동시에 담았던 것이다.

교리의 가사화는 교리서의 대중친화성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리의 토착화에 기여하는 일이었다.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천주교 교리를 가사라는 친근한 시가 장르에 형상화함으로써 신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래의 생경한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조선화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사향가〉에서는 죽음 이후의 사심판, 공심판, 천당, 지옥 등 사말교리에 중점을 두었다. 현세는 잠시 지나가는 풍진세계이므로 현세의 복락을 탐할 것이 아니라, 사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향인 천당의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며 살아야 대부모인 천주를 볼 수 있다는 지복직관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사향가〉는 현세보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무게 중심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당시의 순교영성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게 되었다. 즉 〈사향가〉를 부르는 이들은 누구나 진리의 길에 들어서서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기꺼이 치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을 바라는 마음은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겠다는 열망과 다르지 않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마카오까지 걸어가 공부하여 사제가 되었던 천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유일한 방인신부로 11년간이나 숨어 다니며 성사를 집행하였던 신자들을 향한 사랑을 되새기게 된다. 천주의 자녀로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던 〈사향가〉가 오늘도 새로운 까닭이다. 지금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운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리의 가사화는 교리서의 대중친화성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리의 토착화에 기여하는 일이었다.

수도회 영성

도미니칸 평신도회

찬미하라, 축복하라, 설교하라!

김숙자 마리아 막달레나 도미니칸 평신도회 한국지부 평의회 양성 담당

도미니칸 영성의 핵심은 '설교'이다. 설교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를 뜻하며 이는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하나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도미니코회 수사 화가인 안젤리코의 그림

고요함이 흐르는 천상 정원에서 도미니코 성인께서는 무얼 그리 깊이 생각하실까? **모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수난을 깊이 묵상하는 성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한 가지 성덕인 하느님을 쳐다보게 한다. 모든 올바른 영의 고향은 하늘이며, 영의 참된 지혜는 하느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성인의 가르침인 **"관상하고 전하라.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서만~"**은 1216년 성인이 창설하신 '설교자들의 수도회(Ordo Praedicatorum)'의 모토이기도 하다.

성 도미니코는 여러 이단의 등장과 복음의 정신의 와해로 혼란에 빠져있던 13세기 교회 상황에서 설교를 통하여 구원의 봉사를 해야 할 소명감을 갖고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성인이 지향한 설교는 단순히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관상한 것을 선포하는 인간 구원 활동이었다. 그 카리스마는 당시뿐 아니라 역사 안에서 교회의 쇄신과 교회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래서 성 도미니코는 '설교자들의 사부' 또는 '교회의 진리의 수호자'라 불린다.

그 이름과 같이 도미니칸 영성의 핵심은 '설교'이다. 설교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를 뜻하며 이는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하나이다. 1회 형제회, 2회 관상 수녀회, 3회 활동 수녀회 및 재속회(평신도회)로 구성된 '도미니칸 가족'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맺으시는 많은 열매 중에서 설교의 카리스마에 봉사한다.

평신도로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설교'의 카리스마를 살아가고자 서약함으로써 도미니칸 가족의 일원이 되는 도미니칸 평신도회는, 1285년 '회개의 성 도미니코 형제회'라는 재속 단체에 기원을 두고 있다. 1, 2회의 토마스 아퀴나스, 대 알베르토, 비오 2세 교황을 비롯하여 시에나의 카타리나, 몽포르의 루도비코, 리마의 로사, 마르 데 포르스, 바르톨로메 데 카사스를 비롯한 많은 성인들이 배출된 3회는 도미니칸 1, 2회와 협력하면서 세상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며 성장해 왔다.

한국에는 1990년에 진출하여 터전을 굳히고자 열정과 노고를 다하는 수도회 식구들은 자비의 희년과 함께 수도회 설립 800주년의 희년을 보내는 이중의 기쁨으로 축제의 해를 보내고 있다.

"기쁜 마음은 얼굴 표정을 기쁘게 만든다."고 하듯 도미니코 성인도 인자하고 기쁜 표정을 통하여 영혼의 평온을 드러내셨다고 한다. 수도회 식구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내 모습도 영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기를 느끼고 또 그러기를 소망한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고, 자신이 스스로 응답했음을 끊임없이 묵상하기를 바라며, 충실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깨닫기를 스스로에게 바란다.

성모님 망토 안에 보호받는 성인성녀들

"도미니칸 영혼의 12가지"

빛의 영혼	침묵의 영혼	동정의 영혼
관상의 영혼	기도와 찬미의 영혼	사도적인 영혼
굳셈의 영혼	기쁨의 영혼	교회의 딸
말씀의 모방자	신화된 영혼	마리아적인 영혼

이 선물들을 하느님의 빛으로 조명된 조화로운 삶으로 살아내면서 덕을 쌓아가며 나누는 삶을 살아내고 싶다.

왼쪽 그림의 전부분

도미니칸 평신도회 한국지부 평의회
양성 담당자 김숙자 마리아 막달레나 010. 2266. 5866
카페 – http://cafe.daum.net/dominicanlaity

순교자들의 영성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
- 제6대 평양교구장

김길수 사도 요한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해마다 6월이 되면 이 민족의 깊은 시련과 함께 생각나는 '침묵의 교회'와 가슴 저미는 북녘 땅의 순교자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홍용호 주교
사진 제공/ 메리놀외방전교회 본부, 평양교구 80주년 준비위원회

일어나 가자!(마태 26,46)

최초 한국인 주교인 노기남 대주교 다음으로 두 번째 한국인 주교로 서품되신 분이 호가 석초인 홍용호입니다. 제6대 평양교구장 주교로,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보르지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가,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위와 함께 시복의 영광을 입어 후손인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용호 주교님은 1906년 8월 24일 평남 평원군 한천면 감육리 살구재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매부인 최남현 다니엘의 집(누나는 홍 마리아)에서 보통학교를 마쳤습니다. 1920년 9월 서울 용산 예수 성심신학교에 입학하고, 방학 때에는 평남의 마산성당에 기거하며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노기남 대주교, 윤형중 신부, 양기섭 신부들의 아랫반으로 1932년 5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부제품을 받고 이듬해 5월 25일 평양 관후리성당에서 라리보 주교의 주례로 사제서품을 받고, 관후리본당 보좌로 부임했습니다.

1934년에는 가톨릭 연구사 사장을 겸하며 《가톨릭 조선》(가톨릭 연구 강좌, '가톨릭 연구'로 개칭된 것을 '가톨릭 조선'으로 제호 변경)을 창간하고 조선 가톨릭 기관지로 발전시키며, 평양대목구 출판사를 전담하여 주필 겸 사장으로서 잡지 기사의 대부분을 직접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식민통치하의 한국 천주교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의 하나가 문맹퇴치와 민족자각이라 생각하고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압박으로 《가톨릭 조선》은 폐간되고 홍 신부는 1939년 순천본당으로 겸임됩니다.

1941년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1939년 이래 평양지목구를 대목구로 승격시키며 열악한 조건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활발하게 사목활동을 전개하던 미국의 메리놀외방전교회 신부들을 전승국민이란 이유로 미국 출신 신부와 수녀들은 즉시 감금하고 나머지는 추방했습니다. 이때 홍용호 신부도 이들과 가깝게 지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3개월 동안 감금생활을 했으며 이 기간에 평양대목구의 사목활동이 마비되고 정지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인 1942년 서울 대목구장으로 평양 대목구장을 겸하게 된 노기남 신부(아직 주교서품 받기 전)는 그해 2월 평양을 방문하고 홍용호 신부를 평양대목구장 서리 직무 대리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홍 신부는 이러한 비상사태 연금 중이던 오세아 주교로부터 대목구 사무를 인수받고 노기남 주교의 협조를 받아 본당사목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1943년 3월 9일 홍용호 신부를 평양대목구장으로 임명하고 1944년 4월 17일 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1944년 2월 일제는 평양대목구청과 관후리성당과 부지 건물을 강제 징발했습니다.

홍 신부는 주교 임명 소식을 받고 그 직을 사양하는 겸손을 보였는데, 일제가 일본인 신부에게 주교직을 맡게 하여 주교직이 일본인에게 넘어갈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노기남 주교가 설득하자 심사숙고 끝에 주교직을 수락함으로써 한국인 두 번째 주교로 성성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각오는 비장했습니다.

"나의 표어는 '일어나 갑시다.'(마태 26,46)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이 몸은 어떠한 난관을 당할

순천성당. 그림/ 조명혜

지라도 하느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것을 결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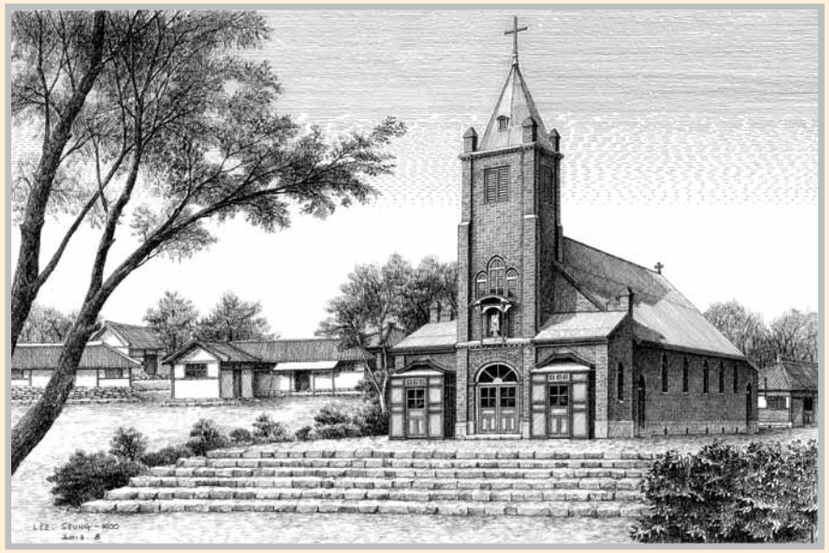
홍용호 주교는 1944년 6월 29일 사우어 주교의 주례로, 교구청과 관후리성당을 강제 징발당한 상태에서 일제가 징발해 넘겨준 평양시 계리의 산정현교회 건물에서 주교서품식을 가졌습니다.

아! 그날의 한

1945년 8월 15일, 전쟁은 끝나고 조국은 광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는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양단되었습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일제보다 더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홍 주교는 해방을 맞아 가장 먼저 일제가 징발해 간 관후리성당을 찾는 일에 나서 끈질긴 교섭으로 1946년 3월에 성당은 회복할 수 있었으나 교구장 비서 강창희 야고보가 피살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산화된 북한은 종교에 대한 탄압을 갈수록 더해갔고 홍용호 주교는 이에 당당히 저항했습니다. 조작한 사이비 단체인 '기독교연맹' 가입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947년부터는 교회학교 폐쇄가 시작되어 그 이듬해에는 천주교 재단에서 경영하는 교회학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항하여 평양대목구는 관후리성당 터에 주교좌대성당을 건립해 신앙의 승리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 8월 5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 중에 주교좌본당을 옮겨놓았습니다.

관후리성당
그림/ 이승구



홍 주교는 박식한 문장가로, 명강론으로 신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던 강직하면서도 덕망 높은 분이었다.

그런데 1948년 12월 관후리성당 건물을 평양 인민위원회에 양도하라는 조치가 전달되었습니다. 홍 주교가 이를 거부하고 공사를 지속하자 공산정권은 1949년부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1월에 덕원 베네딕도 수도회의 엠머링 신부와 배 그레고리오 수사를 강제연행하고 5월에는 홍 주교가 구금되고 6월부터 계속해서 평양시내 성직자들이 체포 연행되어 15명이 평신도와 어린 복사들과 함께 수난을 당했습니다. 덕원 수도원과 신학교가 점거되고 성직자와 신학생들을 체포 추방시키는 사태에 이르자 홍용호 주교는 공산당국에 항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40년간 농업, 교육, 과학, 문화 등에 허다한 공헌을 한 선교사들을 불법 체포한 사실을 해명하라. 둘째, 교회를 폐쇄한 것은 확실히 종교 박해로서 북한 정권 헌법 위반이다. (당시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교회와 개인과는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한 개인의 범죄(만약 있었다면)로 교회를 폐쇄한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넷째, 체포된 전원을 무조건 석방하고 교회를 즉시 개방하라.

이를 받아 본 북한 내무상 박일우는 홍용호 주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월 14일 면담 통지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후에 홍 주교는 서포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의 첫 종신자 서원 면담으로 서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경에 내무성으로부터 오후 6시에 내무상실에서 면담을 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성당에서 전화로 통지를 받은 부주교 김루수 신부가 홍 주교를 모시러 주교관에 갔을 때 홍 주교는 이미 서포로 떠난 뒤였습니다.

주교관에서는 이 급한 통보를 주교관 소사로 있던 김운삼(당시 17세) 복사에게 주어 홍 주교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김운삼 복사가 떠난 30분 뒤에 다시 송은철 복사(당시 18세)도 뒤따라 보냈는데 송은철 복사는 이때 개 한 마리를 끌고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이 두 소년들은 확실히 서포에 도착하여 홍 주교에게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장선홍 신부, 《붉어진 땅의 십자가》중에서).

아! 그날 1949년 5월 14일, 그 이후 한국인 두 번째 주교로 제6대 평양교구장이던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심부름 간 두 복사 김운삼, 송은철과, 개(셰퍼트) 그리고 자전거도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홍 주교가 이렇게 납치된 지점은 서포와 평양 사이에 있는 감북이거리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증거를 없애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 후 홍 주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화소의 한 직원을 통해 홍용호 주교가 평양 인민교화소 특별 정치범 감옥에 수감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1950년 1월 이후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으로 평양이 수복되었습니다. 당시 강현홍 신부와 장선홍 라우렌시오 신부는 종군사제로 평양에 입성하여 주교와 신부 및 수녀 그리고 신자들의 모습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국군이 평양을 탈환하기 직전 이들 전원을 비밀리에 북방으로 이송하였다는 풍문만 들릴 뿐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박해와 순교

평소 홍 주교는 박식한 문장가로, 명강론으로 신자들의 심금을 울려주던 강직하면서도 덕망 높은 분이었습니다. 노기남 대주교는 "홍 주교는 의지가 굳고 성격이 직선적이어서 그 당시 일본 경찰 고등계에선 홍 주교를 감목 대리로 임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회상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홍 주교는 조금이라도 교회가 박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주교정장을 하고 소련군 사령관을 찾아가 엄중 항의하였으므로 소련군 사령부에서도 홍 주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방 후 안 신부(평양교구 서리)가 힘써서 평양 주재 미군 연락 장교단을 통해 원조 물자를 평양교구에 보내던 일이 어제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기선 신부는 "신학교 시절의 홍 주교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시를 잘 쓰던 '책벌레'였다."고 기억하며 또 유머를 잘 구사했고 휴식시간에도 밖에 나가 놀지 않고 독서에만 열중했다고 하면서 남달리 신심이 강한 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평양교구 신우회 회장으로 홍 주교와 신학생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김택관 씨는, 홍 주교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지내며 신학생 시절 방학 동안 평남 강서군 성태면 원당리본당에 와서 기거하며 주일학교 아동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고 회상합니다. 한마디로 덕망이 높고 그릇이 큰 분으로 강론은 청산유수로 교리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가톨릭적 신앙으로 매듭짓는 그분의 강론에 감명 받지 않는 신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일성도 처음 홍 주교를 이용해 보려다 실패했고, 조만식 선생은 나중에 홍 주교와 의논하는 일이 많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용호 주교의 생사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죽음은 새로운 박해로 인한 순교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로써 평양대목구를 비롯한 북한의 전 교회는 한국전쟁 이후 침묵의 교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 ‘인간과 세상’

거짓이 진실을 말하는 나라, ‘태양 아래’

이대현 요나 국민대 겸임교수 · 영화평론가

북한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념’이다. 이념대립, 진영논리에 늘 존재한다.
‘태양 아래’는 그 이념을 버리고 인간 속으로 들어갔다.

‘거짓’과 ‘연출’이 ‘진실’을 보여준다. 진실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거짓과 연출임을 알거나, 그 거짓과 연출의 행간에서 진실을 발견했을 때이다.

북한주민의 모습을 담은 뉴스, 다큐멘터리, 영화는 이제는 더 이상 충격적이기도, 새롭지도 않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보여주든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역시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고 이웃이란 사실이다.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닌, 오직 그 시선으로 러시아 거장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만든 북한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한번 보자.

다큐멘터리/ 2015.04.27/ 92분/
전체관람가/ 감독 비탈리 만스키

이 작품의 끄트머리에서 감독이 아이에게 묻는다. “소년단 입단 후 스스로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니?”라고. 촬영을 위해 학교로, 거리로, 체육관으로, 무용연습실로, 운동장으로, 거대한 기념탑으로 옮겨다닌 여덟 살 소녀 이진미는 대답을 하지 않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린다.

그 모습에 당황하고 안쓰러워, 혹시라도 질문이 어려워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독은 이렇게 바꾸어 다시 말한다. “좋은 것 생각해 봐.” 돌아온 대답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였다. ‘모른다’는 말이 ‘없다’는 뜻이라는 사실은 이어진 “그럼 아는 시(詩) 있으면 외워 봐.”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알 수 있었다.

한참을 머뭇거린 아이가 소년단 입단 선서문을 무표정하게 소리 높여 외운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빛내주시며….”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다.

때로는 수십 권의 책, 수백 명의 증언보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 그것도
과장과 거짓의 의도를 가진 작품이 역설적으로 ‘진실’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북한의 아이들이라고 다를까. 순수한 동심, 아름다운 꿈, 해맑은 눈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독재와 사상으로 그것을 빼앗고, 가로막아도 가슴 한 구석에 살아있음을 한 소녀의 눈물과 무표정이 말해주었다. 때론 이렇게 수십 권의 책, 수백 명의 증언보다 한 편의 다큐멘터리, 그것도 과장과 거짓의 의도를 가진 작품이 역설적으로 '진실'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태양 아래〉가 그렇다.

이 작품에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삐딱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작 배경과 과정, 목적이 말해준다. 우리가 촬영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한 것도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 공동제작이고, 감독인 비탈리 만스키는 전작인 〈더 북〉 〈베크니 오곤〉의 국제영화제 호평이 말해주듯 지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다.

더구나 북한 측에서 '가장 평범한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보여주겠다면서 각본을 직접 써서 건네주었고, 촬영을 직접 도왔다. 그러니 억지 선입견은 갖지 말자. 아니 가지지 않아도 된다. 〈태양 아래〉는 겉과 속을 동시에 드러낸, 나열된 문장과 진미의 눈물처럼 그 행간의 의미까지 읽히는 작품이니까.

〈태양 아래〉의 외형적 문장들은 여느 북한 영상물처럼, 제목처럼 '위대한 태양'으로 떠받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화와 그것을 따르고 찬양하는 북한 주민들, 특히 '연출'된 진미와 그의 가족들의 행복을 보여준다. 감독도 처음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이 찍고 있는 것이 '다큐멘터리'가 아닌 '조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겉'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태양 아래〉는 메이킹필름처럼 조금씩, 몰래몰래, 말없이 제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속'을 행간에 담았다.

촬영에 동원된 학생들, 지하철 플랫폼에 쪼그려 앉은 사람들,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 창밖에 걸린 낡은 내복, 고장 난 무궤도전차를 밀고 가는 행렬, 강연 중에 졸음을 참지 못하는 아이, 김일성과 김정은 동상 앞에 바친 꽃송이들을 쓰레기 취급하듯 마구 수레에 담는 여자. 이런 표정과 풍경이 또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진다.

그 '속'은 북한이 이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를 자랑하고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준비한 진미 가족의 행복한 일상'에서도 감출 수가 없었다. 단

단히 사전 교육을 받았지만 진미에게 촬영은 너무나 힘들어 보였고, 북한 관계자가 "집에서 하던 대로 해라."는 말에 이상해 하고, 어색해 했다. 부모의 바뀐 직업, 처음 보는 넓은 아파트와 자기 방, 음식, 느닷없는 광명성절, 태양절, 소년단 입단식에서의 '주인공' 역할, 그 모든 것에 표정도, 감정도 점점 잃어간다. 연습한 연기가 아닌, 그 표정과 감정이 바로 그의 '속'이다.

그것을 카메라가 침묵의 영상으로 잡아내듯, 진미 역시 소리 없는 눈물로 보여준다. 우리도 안다. 〈태양 아래〉에서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평소 집에서 생활하던 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목소리 높여 조작이고, 연출이고, 거짓이라고 폭로하지 않아도, 진미가 촬영 때문에 호된 춤 연습에 힘이 들어 끝내는 눈물을 훌쩍이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북한의 '지금'과 그곳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굳이 비탈리 만스키처럼 진미에게 "너, 행복하니?"라고 물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과 함께 눈물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어쩌면 진미와 반대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어린이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그것은 '거짓'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 다만, 그 행복이 우리에게는 연민과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큐멘터리는 '진실'이 생명이다. 그것을 포기할 때,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태양 아래〉는 거짓과 조작을 거부하고 그 속의 진실을 행간에 담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그것들이 새삼스러운 이유는 '제3자의 눈'에 비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념'이다. 이념대립, 진영논리에 늘 존재한다. 이념은 둘, 셋일 수 있지만 진실은 하나다. 이념으로 가르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태양 아래〉는 그 이념을 버리고 인간 속으로 들어갔다. 미국 언론인 파하드 만주는 《이기적 진실》이란 책에서 사실이라는 증거 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을 '진실스러움'이라고 말한다. 갈등이 깊은 사회일수록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진실스러움이 활개를 친다.

〈태양 아래〉는 이런 우리의 태도를 질책하려고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내키지 않은 촬영을 하면서, 진미의 눈물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여덟 살, 평범한 북한의 한 어린이의 눈물에는 사상도, 정치적 의도도, 강요도, 계산도 없다. 우리가 기억하고, 닦아주어야 할 '진실'이 있을 뿐이다.

영화음악 세상

위플래쉬*whiplash*

정성엽 바오로 작곡가

이 영화는 한 음악인이 되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스탠더드 빅밴드,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Jazz_band

사제지간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 음악인이 되기까지의 처절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광기 어린 영화. 인간의 한계를 넘도록 요구하는 선생과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시험해 보려는 오기충만한 제자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극단적인 에피소드와 빼어난 촬영기법으로 관객들을 숨 조이게 만든 이 영화는 음악에 관련된 종사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충격을 안겨준 화제작이다.

일부 영화 평론가들은 음악의 탈을 쓴 깡패 또는 액션 스릴러 영화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했다. 2014년 다미엔 차젤레 감독, 106분 러닝타임인 이 작품은 예산 관계로 총 19일 만에 촬영을 끝낸 영화로도 유명하지만 저예산 예술영화치고 대단한 흥행성공을 거두었고 동시에 아카데미를 비롯한 비평가들의 엄청난 찬사를 받은 수작으로 수상, 국내에서만 157만 명의 관객몰이를 했다. 위키트리에 따르면 6천만 원에 사들여 126억 원 가까이 벌었다고.

연주자라는 뜻은 네이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 "악기를 다루어 곡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나와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문연주자가 되려면 대부분 중 · 고등학교(주로 예술 중 · 고등학교)부터 기초를 다지고, 대학입시라는 큰 관문을 거쳐 음악대학의 관련 학과들에서 공부해야 하며, 대학교 다니는 동안 또는 이후에 콩쿠르라는 경쟁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쌓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많지만 실제로 전공을 하고 난 후, 이 분야에서 연주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만큼 자리도 많지 않고 전문연주자가 되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하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전문연주자, 그중 드럼 전문연주자를 다루었는데 한 음악인이 되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드럼을 치면서 손에서 피가 묻어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는 과정은 이른바 "뼈를 깎는 고통"을 엿볼 수 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위플래쉬는 음악작품의 이름이기도 하다. 행크 레비라는 재즈 뮤지션이 만든 곡으로 빅밴드를 위해 연주된다.

빅밴드라 하면 스윙(그네나 시소를 탄다는 의미처럼 리듬을 타고 즐겁게 왔다갔다하는 느낌의 장르)과는 또 다른 재즈 음악 합주 형태이며 타악기(드럼세트), 브라스(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등), 그리고 목관악기군(클라리넷 등)으로 구성, 총 12~25명 정도로 이루는 앙상블을 의미한다. 재즈 오케스트라 또는 재즈 밴드라고도 불린다. 특히 스탠더드 빅밴드는 브라스와 4개의 리듬 섹션(드럼, 어쿠스틱 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피아노와 기타)로 구성되며 여기에 간혹 다른 악기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빅밴드는 당시 굉장한 인기를 누렸으며 점차 즉흥연주가 가미되었다. 여기에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큰 역할을 했고 가장 유명한 리더 중 하나는 우리가 한번쯤은 들어봤을 베니 굿맨이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점은 이 빅밴드를 만든 사람이 이 영화에 나오는 선생 이름인 플레처였다는 것이다(위키트리 참조).

또한 빅밴드 음악은 1930년에서 1960년까지 많은 영화음악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 후 스윙이나 비밥 같은 장르가 나와 다소 위축은 되었지만 재즈에서 큰 역할을 한 장르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작곡가인 필자는 이 영화를 보며 한때 전문연주자를 꿈꾸었던 내 자신의 모습도 생각나기도 했다. 아직도 많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일 년에 수천 명씩 배출되는 현실에서 생활을 위해 또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예비 음악인들을 생각하면 측은한 생각이 든다.

한편 아이러니한 것은 학교 다닐 때 너무나 우수하고 촉망받는 학생들이었다가 현재는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혀 빛을 보지 못하다가 끝까지 공부해 화려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인생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마치 이런 복음말씀처럼.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시편 118,22-23).

평신도 양서

정리
류주희 편집위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지음
허성석 옮김/ 분도출판사
128×188/ 88면/ 8,000원

그노스티코스
– 관상가를 위한 가르침

저자 에바그리우스는 관상가에게 유익한 지혜를 비롯한 실천적인 권고와 가르침을 통찰력 있게 풀어냈다. '영적 인식(영지靈知)'을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앎(인식)'으로 나아가는 관상가는 불순한 자에게는 소금의 역할을, 순수한 자에게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관상이란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분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다. 수행자(praktikos)를 위한 가르침인 《프락티코스》와 《케팔라이아 그노스티카》와 더불어 에바그리우스의 삼부작이다.

자크 필립 지음
추교윤 옮김/ 바오로딸
138×210/ 224면/ 11,000원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기도 시간에 뭘 하지? 기도는 어떻게 하지? 가끔 혼란에 빠져 본 적이 있는가?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답을 제시하는 이 책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궁극 목적인 하느님과 친밀해지는 데 길잡이가 된다.
열매 맺는 기도의 조건은 기술이나 특별한 형식이 아니라 바탕에 신망애 삼덕을 갖춘 내적 자세라며 시종일관 기도에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올곧게 강조한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저자는 자신의 신학적 배경과 피정 지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제적인 조언도 녹여냈다.

심명희 지음
생활성서사
139×205/ 248면/ 13,000원

2% 다른 길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는 이웃과 더불어 '2% 다른 길'을 살아온 요셉의원 고 선우경식 원장과 그를 도운 약사 심명희 씨.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병원을 세운 고 선우경식 원장을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던 그가 요셉의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회를 담아냈다. 고시촌 고시생들의 사랑샘 쉼터와 면목동 어린이들의 차오름 공부방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모았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온 생애를 바쳤던 그들의 삶에서, 한 사람을 거룩히 만드는 자비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데니스 린, 실라 린, 마태오 린 지음
김인호 · 장미희 옮김/ 성바오로
128×188/ 200면/ 11,000원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건강한 용서의 과정을 거쳐 상처를 치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책은 용서의 5단계 과정을 거쳐 상처를 풀어내는 해법을 제시하고, 필자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내적 움직임을 들려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하도록 도와준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잘 안다.
3명의 저자는 용서란 상처를 준 사람의 학대 행위를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고 귀띔한다.

마르코 키에사 글, 마르코 토리첼리 그림
김정훈 옮김, 윤종식 감수/ 가톨릭출판사
154×215/ 240면/ 13,000원

전례단 안내서
– 복사편

전례 봉사자 중에서도 복사에 초점을 둔 이 책은 전례 지식뿐 아니라 봉사자의 역할과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조목조목 짚는다.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언급한다.
미사와 각 성사의 순서는 물론 어디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예절지기들에게 실제 필요한 지식을 골고루 담았다. 일곱 성사 외 장례 미사와 고별식, 성체강복, 장엄한 시간 전례, 가정 방문과 축복 같은 준성사도 빼놓지 않고 설명한다. 여러 전례 형태와 양식을 컬러 그림과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필독서다.

끼아라 루빅 지음
이순영 옮김/ 도서출판 벽난로
130x204/ 176면/ 9,000원

땅위에 당신의 불을

포콜라레 운동이라 불리는 가톨릭 영성 운동을 시작한 저자 끼아라 루빅은 묵상 글을 통해 실생활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부드러우면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역설한다.
생전에 특별히 종교 간 대화를 위해 헌신한 저자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요한 17,21)"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 즉 일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 1959년 출간돼 지금까지 줄곧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내용을 도서출판 벽난로에서 새롭게 펴냈다.

소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불꽃이 향기가 되어》 출판 기념회 열어
– 모범적 신앙을 사신 다섯 분의 이야기가 감동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조성풍 신부)는 2014년 경동제약(주)의 후원으로 시작된 '20세기 이 땅의 평신도' 사업을 통해 평화신문에 1년간 연재했던 다섯 분의 이야기를 《불꽃이 향기가 되어》라는 제목의 책으로 엮어 3월 15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명동성당 프란치스코홀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를 맡고 있는 염수정 추기경의 초청으로 각 교구 주교들과 평협 임원, 선정된 인물의 유족과 집필 작가, 평신도 사도직 단체장 등 약 120명의 축하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빈소개 후 권 회장은 "이 시대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의 복음화로 저희들의 추억을 자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방식에서 멀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로, 평신도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필요했다."라며 이제 "'응답하라! 1988'처럼 '응답하라! 2016의 평신도'를 외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염 추기경은 인사말씀을 통해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책의 제목처럼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었고, 그 사랑은 이웃들로 향해 뿜어진 사랑의 향기가 되었다."며 "우리에게 긍지인 이분들의 모범은 반대로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이며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둔 후배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자고 치하했다.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도 축사를 통해 다섯 주인공 가운데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세 분의 사례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사업을 전개한 한국평협에 감사를 표했으며, 이어서 소개된 작가들은 이번 취재와 집필 작업이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하게 하였다며 각자의 소감을 말했다.

참석한 주교단도 각자 고인들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는데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대구에서 나온 두 분의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김익진 선생의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감동적인 선배 신앙인의 삶을 따르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고,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제주는 특히 여성들의 삶이 힘든 곳이었다. 그런 곳에 여학생을 위한 학교의 첫 졸업생 중의 한분이 최정숙 선생이다. 최정숙 선생의 희생적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밝힌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다섯 분의 삶은 정말 감동적이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다섯 분의 삶을 글로 표현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소개할 수 있었는지 책의 첫 부분을 읽으며 깜짝 놀랐다.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이다."라며 작가들에게 특별히 감사했다.

《불꽃이 향기가 되어》는 인터넷 가톨릭서점(www.catholicbook.kr)과 가톨릭출판사 직영매장은 물론 일반 인터넷서점을 통해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 한국평협, 2016년 제1차 상임위원회의 개최
–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사업 펼쳐나가기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수원평협) 주관으로 4월 1~2일 죽산성지 내에 위치한 수원교구 영성관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갖고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개막미사를 집전한 수원평협 담당 이근덕 신부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부활을 노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에 사로잡히면 죽음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의 방향이 아닌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거부해야 하고 내 경험과는 전혀 다른 때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부활을 노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주님께 받은 섭리의 손길을 느끼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강론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이근덕 신부의 특강에서는 'God is not dead' 영화를 통해 믿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어진 상임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살펴보고 교구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로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음악회와 심포지엄을 펼치기로 결정하였다. 기념음악회는 올해로 10회를 맞는 우리성가 작곡공모의 수상곡 발표회를 겸하는 음악회로 7월 8일 예정이며, 기념 심포지엄은 창립 50주년을 앞둔 한국평협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주제로 9월 연수와 11월 제2차 상임위원회로 예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올해로 33회를 맞는 가톨릭대상의 시상 계획과 추천 방법에 대해 개선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은 영성관이 위치하고 있는 죽산성지를 돌아보면서 신앙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를 드렸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세례도 받지 않은 선각자들에 의해 한국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문을 열면서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인용하여 교회에 대한 정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설명하고 평신도들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론으로 "우리는 신비적인 도의에 힘입어 세례를 받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듯이 우리는 유일한 하나의 사제직을 이루는 지체들이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제인 것입니다."라는 아우구스티노의 《신국론》 말씀을 인용하며 강론을 마쳤다.

● 병인순교 150주년 기념 음악회 열기로
– 제10회 우리성가 공모 수상작 초연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7월 8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서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리니타스합창단, 기쁜소리합주단 등이 출연해 올해로 열 번째에 이르는 우리성가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곡들과 순교자 현양을 주제로 하는 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무료관람이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21대 서울평협 연수로 본격 출범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 조성풍 신부)는 3월 18일 산정호수에 위치한 한화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연수를 열고 시행 두 번째 해를 맞게 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본격적인 전파와 위원회별 사업계획 등을 점검하고 권길중 회장의 재임을 맞아 새로 출범하는 위원들 간의 친교를 다졌다.

'2016 서울평협 활동'을 주제로 한 권길중 회장의 강의에 이어 위원회별 활동으로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진 위원들은 이어진 개막미사에서 임명장과 평협 배지를 받았다. 미사 후 각 위원회는 각각 이번 임기를 위한 주제 성구를 정해 발표하고, 올해 진행할 사업계획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 나누고, 저녁식사를 겸한 친교의 시간으로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산정호수 트레킹을 마치고 인근의 운천성당에서 봉헌한 파견미사에서는 평협 담당사제인 조성풍 신부가 하느님께서 서울평협의 봉사자로 부르셨음을 묵상하고, 기쁘게 봉사하자는 내용의 특강으로 연수를 마무리했다.

● '자비의 특별희년 사랑나눔 바자회'
– 지난 4월 3일 명동대성당과 가톨릭회관 마당에서 개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주최하고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가톨릭 여성연합회가 주관한 '자비의 특별희년 사랑나눔 바자회'가 4월 3일 명동대성당과 가톨릭회관 마당에서 열렸다.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아 서울대교구는 하느님처럼 자비로이 기도하고,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나누자는 취지의 '하자아자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칙서 《자비의 얼굴》을 통해 권고한 영적 · 육체적 실천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취지의 운동이며 이날 바자회도 그 실천의 차원 가운데 하나로 열린 것이다.

사랑나눔 바자회는 오전 10시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13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가톨릭 여성연합회의 '사랑나눔 바자'를 확대하여 서울평협과 공동 개최한 이번 바자회는 20여 개 평신도사도직 단체가 물품기증과 판매, 봉사에 참여했고, 외식업체들이 먹을거리 마당에 음식을 무상 제공하여 비가 오고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는 자비주일 미사와 바자회는 평화방송 TV 생방송과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전했고, 가톨릭 연극협회와 네오까떼꾸메나또 길 회원들의 공연으로 풍성한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평화방송 TV와의 인터뷰에서 권길중 회장은 "올해 자비의 특별 희년에서 시작해서 매년 자비주일에는 온 교구민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것이다. 앞으로 계속될 우리들의 자비의 실천이 이 마당을 통해 이루어지기 바란다."며 "회원단체들의 참여로 한 마당에서 함께 참여하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모두 나눔이 필요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서울평협 회원단체 지원사업 통해 12개 단체 지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5월 11일 서울평협 하상방에서 올해 지원이 결정된 12개 회원단체에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올해는 가톨릭 노동청년회의 국제회의와 연극협회 병인순교 150주년 순교극 등 총 14개 사업에 4천 3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는 지난 3월 말까지 신청된 사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 병인박해 순교형장을 찾아서 2박 3일 성지순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념하며 병인박해 순교형장을 찾는 성지순례를 5월 19~21일까지 2박 3일간 37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다.

평협 담당사제인 조성풍 신부와 평협임원, 일반 참가자로 구성된 순례단은 첫날 출발에 앞서 명동성당 지하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조 신부는 "성지순례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하느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순례는 각자 지향을 두고 기도하며 함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병인년 박해의 순교형장을 찾는 첫 번째 순례지는 절두산 순교성지였다. 절두산성지 박물관을 관람하고 현양탑 앞에 모여 순교의 삶을 살다간 선배 신앙인들의 삶을 기억했다. 순례자들은 성모성지로 많이 알려진 남양순교성지와 해미순교성지를 순례하고 이른 더위로 햇볕이 내려쬐는 한티고개를 넘으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첫날 순례를 마쳤다.

저녁식사 후 '순교자 영성과 우리들의 삶'을 주제로 조성풍 신부의 특강을 들었다. 강의에서 조 신부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분들의 삶을 따르고 있다. 수많은 선택이 모여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순교자와 배교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며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감동은 있지만 금세 잊어버린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은 쉽고도 어렵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다."라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둘째 날 홍주순교터와 매장지를 순례하고 실물 척화비를 살펴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순교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어 갈매못순교성지와 전주숲정이성지를 순례했다.

순례의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은 연풍순교성지와 죽

산순교성지를 거쳐 남한산성순교성지에서 파견미사를 끝으로 2박 3일을 마무리했다.

시드니에서 잠시 귀국한 일정 중에 성지순례에 함께한 참가자는 “관광 프로그램도 많은데 성지순례를 택했다. 순교의 땅을 밟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신앙 선조들의 삶을 본받겠다.”고 소감을 말했고 “순교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번 순례를 통해 기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언제든 부르심에 ‘예’하고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소감을 말한 참가자도 있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본당회장단 · 단체회장단 연수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박원규, 담당 김명현 신부)는 3월 5일 세종시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각 본당 회장단과 교구 인준 단체장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본당회장단 · 단체회장단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2016년 대전교구 사목지표인 “말씀과 성사 안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해”를 실행에 옮기고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잘 보내기 위한 교구와 본당회장단, 단체장 간에 소통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

● 내포 도보성지순례 한생명캠페인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는 5월 1일 병인순교 150주년과 자비의 특별 희년을 기념하는 “제16차 내포 도보성지순례”에서 한생명운동을 실시했다. 당진시 합덕성당에서 개최된 한생명운동은 1000여 명의 교구민이 참가하였고, 자살예방과 성의식 설문조사 및 홍보,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는 등 다양한 생명운동을 펼쳤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6년 상반기 총회장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윤광열, 담당 이근덕 신부)는 4월 9~10일까지 교구 영성관에서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롭게”를 주제로 ‘2016년 상반기 총회장 연수’를 실시했다.

첫날, 말씀전례로 시작된 연수는 이근덕 신부의 강의로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 《자비의 얼굴》 해설과 노자의 《도덕경》을 토대로 하는 리더십 강의까지 장시간 이어졌다. 또한, 연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개 대리구별 모임’을 통해 본당과의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교구 사목방침에 맞춰 ‘대리구제 10년을 돌아보며 개선할 부분과 미래에 대한 보안, 자비의 실천 방향 구체적 제시’를 주제로 토의와 발표가 있었다. 이근덕 신부는 총평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 성 필립보 생태마을 관장 황창연 신부는 ‘자신 껴안기’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이자 본당 총회장으로서의 행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파견 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본당 평신도 사도직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은 평신도 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여러 난관을 극복하여 영광의 주님께 나아가야함을 이 부활 시기에 깊이 묵상하고 다짐하자.”고 권고했다.

● 사도직단체회장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교구 사도직단체 간의 상호정보교환과 단체회장들의 친화를 도모하려고 연 1회 사도직단체회장 연수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5월 13~15일, 영성지도신부와 13개 단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실시하였다.

이근덕 영성지도신부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10월 예정된 ‘해외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에 앞서 각 단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다.

● 사진가회 제15기 사진교실 초급과정 개강

수원교구 사진가회는 3월 7일 수원대리구 원천동성당 지하 강당에서 김우정 신부의 주례로 ‘제15기 사진교실 초급과정 개강미사’를 봉헌하고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미사에는 사진가회 임원 등 일부 회원들과 수강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강식은 노창래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우정 신부의 격려사와 참석회원 및 강사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교구 사진가회는 매년 사진교실 수강생을 모집하여 초급, 중급, 고급 과정(각 3개월)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원천동성당에서 실시된다. 9개월의 전 과정을 수료하면 사진가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여성연합회 제69차 정기교육

수원교구 여성연합회에서는 3월 17일 수원교구청 지하대강당에서 회원 및 여성단체장 39본당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상호(요한) 한국HRD진흥원장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즐거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 하였다.

● ME 제400차 주말

매리지엔카운터 수원협의회(수원 ME)는 4월 8~10일 경기도 의왕시 성라자로마을 아론의 집에서 '수원 ME 제400차 자비의 주말'을 진행했다.

원로사목자 정지웅 신부의 지도로 진행된 400차 주말은, 곤지암 · 광주 · 상촌 · 상현동 · 서정동 · 신흥동 · 양지 · 영통영덕 · 오산 · 오전동 · 율전동 · 죽전 · 평촌 · 흥덕 등 본당에서 14쌍의 부부가 참가했으며, 봉사자 3쌍의 부부가 이끌었다.

파견미사 중 정지웅 신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영성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한다."면서, ME 주말 체험 부부들에게 "은총의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증거의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손을 맞잡으며 파견성가 '나의 모든 삶의 보람인 당신'('새로운 세계' 중)을 소리 높여 부른 부부들은, 하느님이 바라시는 남편과 아내 상호간 신뢰와 일치를 통해 빛으로 거듭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다짐했다.

● 제15회 수원교구장배 축구대회

수원교구 축구선교연합회는 4월 24일 안산 해양인 조잔디구장에서 '제15회 수원교구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선교 리그' 6개 팀(미양성요한마리아비안네 · 은행동성가정 · 별양동 · 죽전 · 조원동주교좌 · 안산성마르코 본당)과 '장년 리그' 6개 팀(상대원 · 평촌 · 와동일치의모후 · 구성 · 동탄능동 · 권선동 본당), '청년 리그' 5개 팀(송현 · 중앙 · 분당성마태오 · 수지 · 감골 본당) 등 총 17개 본당 축구선교회가 출전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개 구장에서 진행된 대회는 선교 · 장년 · 청년 등 3개 리그로 나눠 총 40경기(게임 당 전 · 후반 30분)를 치렀다.

대회 결과, '선교 리그' 우승 · 준우승은 안산 성마르코 · 은행동 성가정 본당이 차지했으며, '장년 리그' 우승 · 준우승은 평촌 · 권선동 본당, '청년 리그' 우승 · 준우승은 송현 · 감골 본당이 각각 차지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오전 11시 운동장에서 야외미사를 주례했다. 이용훈 주교는 강론을 통해 "교회는 일치와 화합을 축구경기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하는 축구선교회를 이루자."고 말했다. 한편, 미사중 이용훈 주교는 지난 해 '축구'를 통해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인 각 대리구별 선교우수본당을 격려하고 시상했다.

● 파티마 성모발현 제99주년 기념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미사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에서는 5월 13일 죽산성지에서 교구 내 각 본당의 셀(Cell) 회원들과 일반 신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티마 성모발현 제99주년 기념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미사'를 총대리 이성효 주교 주례로 봉헌했다.

미사에 앞서 오전 10시 묵주기도에 이어 성지 내 순교자 묘역 및 잔디마당에서 평택대리구 사회복음화국장 이재웅 신부의 특별 강의가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성효 주교는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된 미사에서 "파티마 성모발현 제100주년을 한 해 앞둔 시점에서, 2016년의 주제를 '나는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요한 3,16 참조)로 정했다."면서, "그 신학적 핵심으로 '넘치는 생명의 하느님', 교리적 요소로 '나눔'을 각각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영환 회장은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지 99주년이 되는 오늘,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자비의 특별 희년에 기쁨과 기다림의 설렘 속에 기도 · 희생 · 봉헌으로 100주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묵주기도와 죄인들을 위한 희생으로 세상에 전파하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세계적 신심단체다.

수원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현재 교구 내 65개 본당에서 2,500여 명의 셀 정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2016년 성령 강림 대피정

2016년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수원교구 성령쇄신봉사회는 5월 14일 한국천주교 발상지 천진암성지에서 5천여 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령 강림 대피정을 개최하였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피정은 준비찬양, 묵주기도, 찬미와 율동으로 이어지는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로 시작해, 광주대교구 원로사목자 강길웅 신부 강의(오전 · 오후), 청년 찬양단의 찬미와 율동,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됐다.

파견미사는 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각 대리구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지도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됐다. 이용훈 주교는 천진암성지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며, 한국천주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 강론했다.

강의를 맡은 강길웅 신부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의 대역사와 그 축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자."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천상 왕국'이 멋지게 건설되어 있어서 죽음의 뿌리를 걷어내고 영원한 생명에 장엄하게 참여하고 있

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 후에는 영명축일을 맞이한 이용훈 주교를 위해 준비한 조촐한 축하식이 이어졌다. 성령쇄신봉사회에서는 꽃다발과 영적, 물적 선물을 이용훈 주교에게 전하며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성령쇄신봉사회에서는 행사장 곳곳에 고해소를 설치하여 참석자들이 자비의 특별 희년 전대사를 받도록 이끌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6년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차 정기 모임 – 단체장 신년하례 및 임명장 수여식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효수, 담당 강신모 신부)는 1월 5일 교구장 이기헌 주교와 단체장 16명이 함께한 신년하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강신모 신부는 신년사를 통해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의정부교구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구 단체장들이 합심 · 단결해 의정부교구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힌 후 단체장과 단체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헌 주교는 신년 인사를 통해 원숭이띠의 해를 맞아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하고, 자비의 희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역량을 강화해 소공동체의 연계를 강조하고, 활발한 공동체 참여와 책임감으로 꾸준하고 소신 있는 노력을 보태어 그 어느 해보다 값진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희망찬 의정부교구를 발전시키는 데 깊은 관심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또한 북한 형제들을 위한 기억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안에 가득한 적대감과 용서치 못한 마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과거 전쟁의 아픔을 잊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했던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와 밤 9시 기도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한효수 바오로 회장이 처음으로 단체장들과 신년 하례를 겸한 자리로 신임 장해진 바오로 부회장을 포함하여 6명의 단체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교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저녁 식사 시간에 참석했던 단체장들은 각 분야에 걸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부교구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각 단체교류 및 협력을 함께 다짐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평협 도보성지순례 및 1일 피정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도용희, 담당 손삼석 주교)는 5월 28일 경남 삼랑진에 소재한 부산교구 대표성지인 김범우 순교자의 길을 도보성지순례하고 묘지참배, 상임회의, 성모님의 날을 봉헌하는 등 보람된 하루를 보냈다. 성모동굴성당에서 드린 미사 중에 총대리 손삼석 주교는, 한국천주교 최초의 수덕자인 홍유한(호는 농은) 선생의 삶과 그의 후손 중에 성인, 복자, 순교자를 중심으로 특강을 했다.

홍유한 선생은 비록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강학회원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천주실의', '칠극' 등 천주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권철신, 이기양, 홍낙민 등과 더불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들여와 신앙공동체를 만들기로 다짐하였고, 자신부터 먼저 신앙적 수계생활을 시작하였기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산 증인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부산교구가 매년 발행하는 회지 《부산평협》 발간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과 함께 교구민에게 유익하고 읽혀지는 책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한국평협이 주관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실천방안으로 지구 살리기 운동 실천사항도 채택했다.

▶ 개인 컵 사용, 장바구니 사용, 대중교통 생활화, 가까운 거리 걷기, 자원 재활용 생활화,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 건전한 먹거리 운동 전개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6 전반기 본당회장 · 교구단체장 및 평협위원 연수회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안상덕)는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창원시 구산면 저도에서 2016 전반기 본당회장 · 교구단체장 · 교구평협위원 연수를 2016 사도직활동지침서에 근거하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저도 주차장에서 주어진 출발 미션은 비치로드에서 조망이 가장 좋은 두 곳을 미션의 완성지로 정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5조로 나누어 저도 해상둘레길 순례와 영적묵상을 하며 조별 산책이 이어졌다.

조망 포인트 제1전망대 나무계단에서 출발 때 주어진 조별 미션을 완수하고, 미션에서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제2전망대까지 조별로 순례한 후 콰이강의 다리와 저도연륙교 아래에 위치한 횟집으로 이동하여 선상에서 배기현 신부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선상 만찬으로 2016 전반기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및 평협위원 연수회를 사랑과 우정, 친교와 영성을 마음껏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마칠 수 있었다.

● 대산본당 설정 40주년 기념 및 구한선 타대오 성지조성 기공식

대산본당 설정 40주년 기념 감사미사 및 구한선 타대오 성지조성 기공식이 5월 7일 교구장 안명옥

주교 주례로 봉헌되었다. 안명옥 주교는 강론을 통해 “설립 40주년을 맞는 대산본당이 서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로서 40년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풍요로운 축복을 가득 내리시길 기원하며,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보다 큰 자긍심을 지니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덕 총회장을 비롯한 권춘옥 총무국장, 김병삼 복음화분과장. 최종복 시복시성분과장, 황광지 문화홍보분과장, 오영환 마산지구장, 김덕곤 전회장이 함께했다. 농촌 본당에서 본당의 역사책을 발간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황광지 문화홍보분과장의 도움으로 공동체 발자취를 담은 멋진 본당 40주년사가 완성되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6회 교구장배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4월 23일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서 교구장배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되었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 담당 서철 신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올해 16회째로 지금까지 노인사목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매년 100여 명의 교구 내 어르신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어 왔다. 서철 신부의 시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오전 팀 경기와 점심식사 후 준결승, 결승전 경기가 벌어졌다. 어르신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즐거운 경기를 내내 즐겼으며 청명한 날씨 속에 하느님의 은총을 만끽하였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 제단체 임원연수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 김정용 신부)는 5월 28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위원 및 교구단위 제 단체 임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자비의 희년과 참다운 신앙공동체’라는 주제로 김재기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이어 참다운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활발한 분임토의가 이루어져 본당 간, 제 단체 간 교류와 친교를 이루는 시간이 되었다. 파견미사는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 여성을 위한 연수회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명자, 담당 김정용 신부)는 4월 29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연수회를 가졌다. 첫 번째 특강으로는 “조선시대의 여성들, 왜 천주교에 열광했나?”라는 주제로 김정숙 교수(영남대학교 역사학과)의 열강과 두 번째 “이 시대 여성,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선옥 막달레나(소설가)의 특강이 있었다.

● 광주 광산2지구 도보성지순례

광주 광산2지구는 4월 30일 지구 내 사제, 수도자, 평신도 2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광스포디움에서 영광순교자기념성당까지 3.5km 도보성지순례를 하면서 1801년 발생한 신유박해 때 이 지역에서 순교한 이화백과 복산리의 양반 오 씨의 정신을 기렸다.

또한 광주광산1지구도 5월 1일 새별초등학교에서 한마음행사를 갖고 지구 내 본당 간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 ‘자비의 특별 희년’ 맞이 다락방기도 대피정

마리아사제운동(M.S.M) 광주대교구 평신도 다락방기도 봉사회(회장 윤정옥, 설인정, 담당 강요섭 신부)는 5월 7일 염주동성당에서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시편 103,17)를 주제로 대피정을 열었다.

이날 강의는 옥현진 주교(광주대교구 총대리)와 로랑 라로꿰 신부(전 세계 마리아사제운동 피정지도 및 국제대표)가 맡아 ‘자비의 희년’을 맞이하여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 성모신심대회

한국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단장 조상현, 담당 이정화 신부)는 5월 14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5,400여 명의 단원들이 모인 가운데 ‘레지오 나눔봉사기념관’ 착공 기념으로 성모신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하느님 자비의 도구이신 성모 마리아”라는 주제로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원장)의 강의와 박상운 신부(여산성당 주임)의 ‘묵주기도의 의미와 묵상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성모님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막연하게 바치던 묵주기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6년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임원 워크숍 개최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귀석, 담당 김영수 신부)는 4월 1~2일 전북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임원과 담당 김영수 신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임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정기총회 일정, 요안루갈다제 현양 대미사 전례협조, 전야음악회 협조, 요안루갈다 동정부부 관련서적 판매사업, 요안루갈다길(초남이성지 → 치명자산 광장) 도보순례 협조, 평협 회원대상 성지순례, '낮추어 살기 운동' 전개, 하느님 자비의 희년 실천 운동 전개, 희망과 기쁨 나누기 운동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6월 11일에 2차 워크숍을 거쳐 최종 실천방안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 제16회 요안루갈다제 부대행사
– '동정부부' 관련 서적 판매 및 홍보

전주교구는 5월 7일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 그의 가족들이 합장되어 있는 이곳 치명자산성지에서 "순교 안에서 자비를"이라는 주제로 제16회 요안루갈다제를 거행하였다.

이 순교자 현양 대미사를 봉헌하며 피로써 믿음을 고백한 순교자들의 고결한 신앙을 보전하고, 순교복자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 동정부부의 거룩한 사랑의 삶을 본받아 이 세상에 참다운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다짐하였다.

부대행사로 미사 봉헌 후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회원운동단체의 하나인 '요안루갈다회'에서는 동정부부 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전주교구의 많은 신자들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총이사회 동아시아 3그룹 조정관 방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김태영, 담당 최정묵 신부) 집행위원들은 5월 28일 한국을 방문 중인 총이사회 동아시아 3그룹 조정관인 모리스 융 형제(홍콩)와 한국 빈첸시오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을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모리스 조정관은 설립 초기 뉴질랜드 이사회와 총이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사회가 신속한 발전을 통해 몽골이사회와 방글라데시 이사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그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고 있는 것은 빈첸시오회 성장 역사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며 총이사회를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빈첸시오 전교회 대만지부에서 제작한 빈첸시오 성인상을 전달하며 한국이사회가 전 세계 빈첸시오 가족의 성장을 위해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2019년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파나스코 대회에 많은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5년 수원교구이사회의 지원과 몽골성당 한국인 신자들에 의해 설립된 성모승천협의회는 2013년 항올성당(주임 허웅 신부/ 대전교구) 몽골 신자들 중심의 협의회로 독립하여 변경 내용을 총이사회에 보고하고 현지 주교의 축복에 따라 허웅 신부가 초대 영적지도자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다. 2015년 수원교구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몽골이사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구이사회와 협조하여 몽골이사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현재 서울교구이사회 산하 6개 협의회와 원주교구이사회 산하 3개 협의회가 방글라데시 협의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이사회에서는 더 많은 교구이사회에 자매결연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국가톨릭 병원협회

● 천주성삼병원,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40번째 회원병원으로 가입

천주성삼병원이 지난 3월 2일 한국가톨릭병원협회(회장 강무일)의 40번째 회원병원으로 가입하였다.

2003년 3월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에서 개원한 천주성삼병원은 '최상의 의료를 추구하는 천주성삼병원'이란 슬로건으로 의료진을 포함하여 직원 330여 명이 근무하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다.

현재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14개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전인적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 2016년 1차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

2016년 3월 3~10일까지 8일간 5개 회원 병원 소속 의료기사 5명이 일본 사회의료법인 눈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그룹은 회원 병원에 소속된 영양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재활치료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별 연수 이외에도 양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성마리아병원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강의도 포함되었다. 연수생들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에서 운영 중인 요양 시설과 연계하여 노인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입원과 동시에 재활치료가 병행되는 시스템이 가장 큰 배울 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가톨릭 의사협회

● 제48차 총회와 피정, 의사답게 살기 선포식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고영진)는 3월 12~13일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2016년도 제48차 총회 및 피정을 갖고, 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가톨릭 의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자비로워지십시오"를 주제로 한 피정과 총회는 오웅진 신부와 김평만 신부(한국가톨릭의사협회 대표담당사제)의 강의와 고해성사, '가톨릭 의사답게 살겠습니다' 선언식, 파견미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에 참석한 회원 110여 명은 선언식과 결의문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전인 치유를 실천하며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환자의 궁금증에 친절하게 답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단체 고유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행동하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의 일원답게 살기로 결의했다.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 2016년 제1차 중앙이사회 및 죽산성지 순례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홍현자 수녀)는 4월 9일 경기도 안성에서 중앙이사 및 자문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중앙이사회 및 죽산성지 순례를 실시하였다.

죽산순교성지는 고려시대 오랑캐가 진을 친 곳이라 하여 '이진(夷陣)터'라 하였는데, 1866년 병인박해 당시 "거기로 끌려가면 죽은 사람이니 잊으라." 하여 신자들 사이에서는 '잊은 터'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죽산성지는 순교의 처절함이 서린 장소로 5월이면 진분홍의 영산홍이 흐드러지게 피어 '피의 순교'를 가슴에 새기게 한다고 한다.

성지 중앙에는 무명 순교자 묘를 중심으로 순교자 현양탑과 순교자 묘 24기가 좌우 12기씩 나란히 모셔져 있는데, 이들 중 25명만 행적이 남아있을 뿐 나머지 100여 명의 순교자들은 이름조차 알 길 없다고 한다. 신앙을 증거하며 하느님께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신심을 가슴에 새기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상을 한 후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강론 중 "죽어야 산다. 그래서 죽산성지"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제1차 중앙이사회 개최와 죽산성지를 돌아보는 하루의 여정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 한국가톨릭 간호사협회 전국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2016년 5월 28~29일 전남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광주대교구 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문애란, 담당 김명섭 신부) 주관으로 전국 각 교구에서 총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피정 및 제60회 전국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장들의 반가운 개회사와 환영식사에 이어 '서편제' 공연이 있었으며 보너스로 춘향가 중 사랑가,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등의 문화 공연이 있었다. 이어서 식전부터 참석한 광주대교구 옥현진 주교의 '자비하신 아버지'에 대한 특강과 미사가 진행되었다. 특강은 '아버지'가 주제로 준비된 동영상 자료들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는데 모든 회원들의 심금을 울려 피정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데 최고였다. 미사는 성체성혈 대축일 미사로 봉헌하였는데,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중에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먹고 산다'는 결론을 이끌어주었다.

저녁에는 밤하늘이 펼쳐지는 잔디 야외 마당에서 이윤정 수녀의 도움으로 촛불 켠 여인들의 5가지 지향을 담은 묵주기도를 드렸다. 밤 프로그램으로 소록도본당 김연준 신부의 특강이 이어졌는데 본인의 선교사명, 43년 동안 소록도 나병환자를 돌본 오스트리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자매들의 소명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고 있는 볼리비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리얼하게 펼쳐갔다. 이를 통하여 회원들도 각자의 역할에 대한 소명을 다시 생각하고 영적 · 물적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앙이사들과 전국회장들이 함께 전국이사회를 하며 협회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9일에는 오전 7시에 아침기도와 묵상시간을 가졌으며, 두 팀으로 나누어 차 만들기 체험과 대한다원의 차밭 산책을 하였다. 도착부터 전라남도의 귀한 음식들을 주식, 간식으로 정성스럽게 많이 주어 식탁이 내내 참 풍성했다. 또한 기념품으로 회원들이 만든 묵주를 선물로 받고 각자가 만든 녹차 한 봉지, 귀갓길에 간식으로 기장떡과 찹쌀밥, 과일 등도 마련해 주었다. 귀갓길에는 교구별로 보성 주변의 아름다운 곳곳을 더 관람하며(남해 다도해, 벌교, 순천만, 편백나무숲, 조정래 기념관 등)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느님이 주신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남도의 아름다움과 하느님 모상을 가득 담은 풍부한 인심을 광주대교구의 가톨릭 간호사들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문애란 회장, 김정희 총무, 최경숙 회원 이하 광주대교구 가톨릭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수고하였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전국성령쇄신 1일 대피정 전국에서 2천5백여 명 참석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회장 김현조, 담당 김명선 신부)가 주관한 '전국성령쇄신 1일 대피정'이 "일어나 걸어라"(마르 5,41)라는 주제로 5월 8일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피정에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고, 김보록 신부와 오웅진 신부의 특강이 있었다. 특히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에서 500여 명의 신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제1회 창작 복음성가제 대상 등 수상자 선정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가 주관한 '제1회 창작 복음성가제' 입상곡이 선정됐다. 5월 28일 서울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에서 열린 이 성가제에서 남석균 형제(마산교구)가 '새롭게 하소서'를 불러 대상(상금 1백만 원)을 받았고, 노정해 자매(수원교구)가 '주님의 빛 내게 비추시니'로 금상, 최현지 자매(안동교구)가 '바람의 언어'로 은상, 천동욱 형제(서울대교구)가 '독수리 날개처럼'으로 동상을 받았다.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에서는 올해 초부터 가톨릭 교리와 복음정신에 부합하고, 성령쇄신에 맞는 기쁨과 찬미 위주의 복음 성가곡을 공모, 3백여 편의 응모작 중에 10편(팀)을 최종심에 올려 이날 입상자를 뽑은 것이다.

심사위원장 고영민 형제(삼성산 성령기도회 음악부장)는 "좋은 작품이 너무 많아 최종 입상자를 가리는 데 애를 먹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복음성가곡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메리지 엔카운터

● 2016년 상반기 총회 개최

2016년 2월 29일~3월 1일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전국 17개 교구 · 지역 대표팀과 한국 ME 상임위원 등 60여 명(사제 3명)이 참석하여 2015년 사업 보고와 결산, 201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하였다.

● 팀 양성교육

2016년 4월 23~24일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발표사제 1명, 팀양성 28부부가 참석하여 사도직 프로그램(엑소더스, 선물) 및 ME주말 대요지침의 작성, 검토, 발표시 유의점을 전달하였다.

● 제14차 디퍼 주말

2016년 5월 20~22일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발표팀 3명, 사제 2명, 11부부가 참석하였으며 ME 첫 주말을 수강한 후 봉사자로 초대받은 사제와 부부들도 참석했다.

● 전국 ME 주말

전국에서 3~5월 현재 2박 3일 일정으로 22주말이 실시되어 전국 17개 교구 · 지역에서 사제 2명, 수도자 1명, 330여 부부가 참가하였다.

● 한국 ME 가족을 위한 미사

3~5월 셋째 주 토요일 6시 중화동성당에서 한국 ME 대표 김웅태 신부 집전으로 한국 ME 상임위원들 및 ME 가족들이 미사를 드렸다.

● 대전 ME 제14차 가족모임

5월 5일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유흥식 주교 집전으로 미사와 함께 시작하였다, 한국 ME 김웅태 신부를 비롯한 사제 13명과 한국 ME 상임위원 등 500명이 참가하였다.

● 동서울 ME 제5회 가족모임

기차여행으로 배론성지에서 동서울 ME 가족 770여 명과 한국 ME 김웅태 신부와 상임위원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피정을 실시하였다.

● 부산 ME 35주년 가족모임

5월 14일 사제 13명과 한국 ME에서 상임위원을 비롯한 550명의 참가자가 부산 가톨릭대학교에서 부산교구장 황철수 주교 집전으로 미사를 드리고 가족모임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광주 ME 제18회 가족모임

5월 14일 사제 6명, 한국 ME 상임위원들과 내빈 20명, 참가부부 507명이 함께하여 광주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옥현진 총대리 주교의 집전으로 미사를 드리고 가족모임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국가톨릭 학교장회

● 2016 한국가톨릭학교장 연수,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정기 세미나

5월 24~26일 가톨릭학교장 연수가 대전교구 정하상교육관에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주관으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각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하여 권길중 한국평협 회장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가치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고,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청주교구 매괴고등학교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둘째 날에는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2016 정기 세미나가 "학교 안에 자비의 문화를 세웁시다"라는 주제 아래 청주교구 양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곽승룡 대전가톨릭대학교 총장신부가 "자비,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약입니다!"의 주제 강연을 비롯하여 7명의 발표자가 함께하였다. 아울러 양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가톨릭학교장 30명, 학부모 30명, 양업고등학교 학생 50명 등이 참석하여 양업고등학교 강당을 가득 메웠다.

'다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약속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쇄신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를 넘어,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로 확산하는 사랑의 선순환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기변화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사회의 아픈 곳을 마주하는 용기, 통렬한 자기반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goo.gl/DEoioe

Editor's Letter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부는 것을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현실주의자는 바람에 따라 돛의 방향을 조정한다."(윌리엄 아서 워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시대나 그러하듯 맞바람 속을 힘겹게 걸어가며 시대를 거슬러 살다간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천주교 신앙으로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몸이 찢기는 극형을 당한 황사영 알렉시오도 그랬습니다. 반역자라는 논란도 있지만, 이즈음은 천주교인들조차 다투어 입신양명을 좇는 세태라 벼슬길을 마다한 '천주교인 황사영', 그 이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황사영은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어쩌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시대 가톨릭 지성인들은 어떠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어찌하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용기 있게 글을 쓰고 행동할 수 있을까?'

병인순교 150주년을 지내는 올해, 〈평신도〉 여름 호에서는 '현대의 순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7,000만 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65%인 4,550만 명이 20세기 들어 희생됐다고 합니다. 1950년 우리나라에서도 겨레가 총부리를 맞대고 싸운 전쟁으로 말미암아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신앙 때문에 순교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이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을 보면, 현대의 순교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듯합니다. 초기 교회의 순교자뿐 아니라 현대의 순교자들의 시복시성과 아울러 그분들의 순교 정신을 계승하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시대의 바람이 부는 것을 불평하거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자신을 바꾸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6년 6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신동수	세라피나	seraoo6@hanmail.net
대전평단협	이병인	미카엘	duck1995@hanmail.net
인천평협	김선우	다미아노	ksw7287@hanmail.net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wonju@pbc.co.kr
대구평단협	이영구	실베스텔	mecouple@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정영수	프란치스코	cjjys2000@korea.kr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의정부 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손세공	비오	eldison@naver.com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한경숙	마리안나	kshan628@nate.com
한국가톨릭병원협회	강영숙	마리아 막달레나	magdalena57@hanmail.net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pravda89@naver.com
M.B.W. 한국 공동체 추진 봉사회 회장	송애련	젬마	ae4789@hanmail.net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이익태	마르코	7romeo@naver.com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